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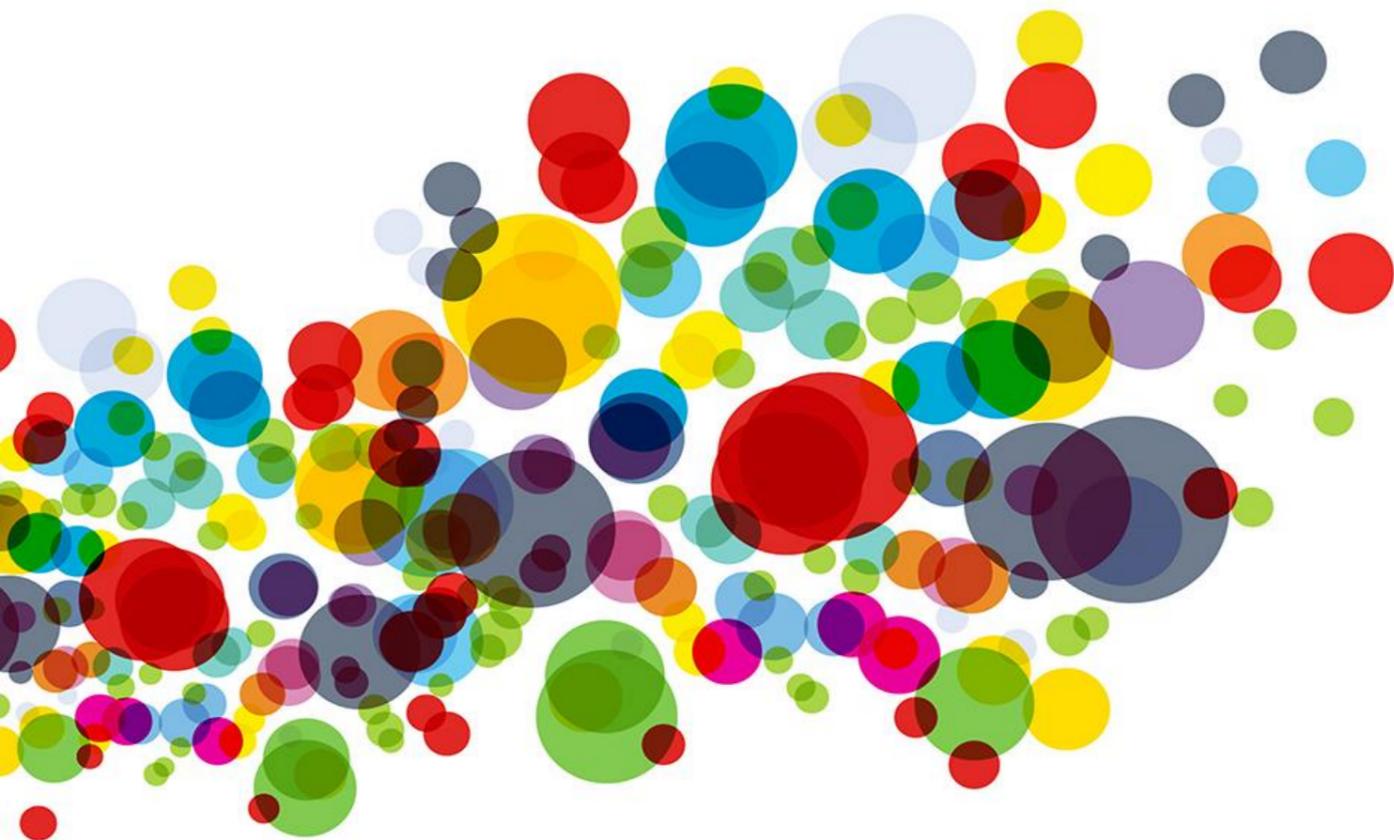
ISKS



화해 · 평화 · 번영을 위한
코리아학 국제 워크숍

심양 2018

August 17-18, 2018



국제고려학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화해 · 평화 · 번영을 위한 코리아학 국제 워크숍

심양 2018

국제고려학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 15 : 30 ② 「북남/남북 언어 통합」 사회 : 연재훈(런던대)
 · 홍윤표 (전 연세대) 『남북 어문 규범 통일에 대한 관견』 (30 분)
 · 문영호 (조선사회과학원) 『북남언어규범의 통일에서 나서는 언어학적문제』 (30 분)
 · 권재일 (서울대) 『남북 언어 통합 과제의 현황과 방향』 (30 분)
 · 송재목 (한국외대) 『남북 언어 규범의 통합 방안』 (30 분)
 토론
 코멘트 : 송남선 (오사카경제법과대)

18 : 30 만찬

8. 18 (토)

- 10 : 00 ③ 「아리랑」 사회 : 모리 토모오미(오타니대)
 · 고정자 (고베대) 『일본에서의 ‘아리랑’ 이미지 수용의 양상』 (30 분)
 · 공명성 (조선사회과학원) 『본조아리랑의 유래를 정확히 밝히기 위한 문제』 (30 분)
 · 리영호 (조선사회과학원) 『악보를 통해본 아리랑의 음악형상적발전과정』*대독
 (30 분)

토론

12 : 00 중식

- 13 : 30 ④ 「코리아의 생활 민속 문화 - 술과 음식을 비롯하여」
 사회 : 공명성(조선사회과학원)
 · 신익철 (한국학중앙연구원)
 『생활·민속 문화 분야의 남북교류사업 - 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사업 -』 (30 분)
 · 조대일 (조선사회과학원) *대독
 『우리 민족의 식생활에 대한 역사적 및 사회적연구와 국제적인식문제』 (30 분)

토론

코멘트 : 서영빈 (대외경제무역대)

15 : 00 휴식

- 15 : 15 ⑤ 「남북/북남 유적 조사 연구」 사회 : 이길상 (한국학중앙연구원)
 · 안승준(한국학중앙연구원)
 『남북 고문헌 자료의 공동 조사 연구 및 활용방안』 (30 분)

토론

16 : 15 종합토론

17 : 45 폐회식

18 : 30 만찬

목 차

의 제 1 남북/북남 경제 협력의 재시동과 평화 체제 구축의 모색

- 남북경제협력의 재시동과 평화 체제 구축의 모색 송영훈 (강원대학교) 7
-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개발의 자연지리적유리성과 그 발전전망에 대하여
김 철 (조선사회과학원)

의 제 2 북남/남북 언어 통합

- 남북 어문 규범 통일에 대한 관견 홍윤표 (전 연세대학교) 11
- 북남언어규범의 통일에서 나서는 언어학적문제 문영호 (조선사회과학원) 17
- 남북 언어 통합 과제의 현황과 방향 권재일 (서울대학교) 21
- 남북 언어 규범의 통합 방안 송재목 (한국외대학교) 25

의 제 3 아리랑

- 일본에서의 '아리랑' 이미지 수용의 양상 고정자 (고베대학) 29
- 본조아리랑의 유래를 정확히 밝히기 위한 문제 공명성 (조선사회과학원) 35
- 악보를 통해본 아리랑의 음악형상적발전과정 리영호 (조선사회과학원) 39

의 제 4 코리아의 생활 민속 문화 - 술과 음식을 비롯하여

- 생활·민속 문화 분야의 남북교류사업 - 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사업 - 43
신익철 (한국학중앙연구원)
- 우리 민족의 식생활에 대한 역사적 및 사회적연구와 국제적인식문제 55
조대일 (조선사회과학원)

의 제 5 남북/북남 유적 조사 연구

- 남북 고문헌 자료의 공동 조사 연구 및 활용방안 안승준 (한국학중앙연구원) 57

남북경제협력의 재시동과 평화 체제 구축의 모색

송영훈 (강원대학교)

1. 새로운, 그러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회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사회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등이 정책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북한경제의 도약을 위하여 각 단위가 분발할 것과 무책임, 무능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지속되고 있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7월 13일 싱가포르 강연에서 남북경제협력을 “싱가포르에는 없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또 하나의 기회”라고 강조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거듭 신뢰를 보이면서, 남북경제협력과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해 하루빨리 평화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역사적 대결을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난관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북한과 미국이 자기 관심사만 앞세우기보다 배려하며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남북한 경제협력과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개성공단 사업 또는 금강산관광 사업의 재개를 시작으로 남북경협의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남북한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특히 미국의 11월 중간선거에 따른 국내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 미국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고,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어느 수준까지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일부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등은 앞으로 남한, 북한, 미국을 비롯 이해관계자들의 긴밀한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다. 즉 남북한 경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의 정치적 안정이 보장되고 평화체제의 구축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남북경협에 대한 남한 중소기업의 인식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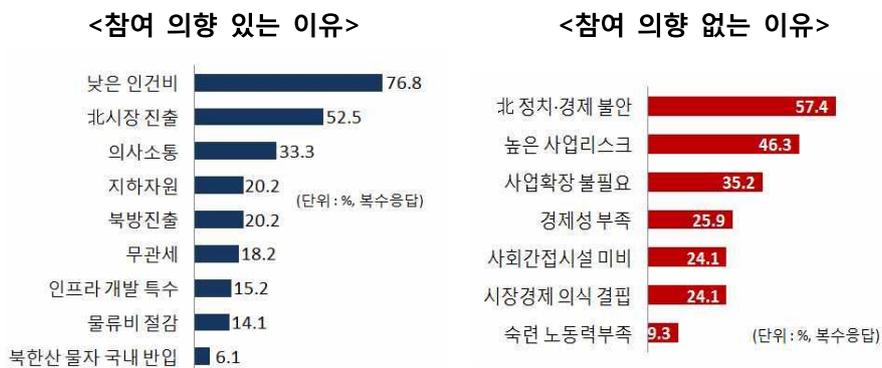
남북경협을 위한 남한의 주요 주체는 기업이다. 남북경협 중단 이전 개성공단 모델로 진행이 될지 아주 새로운 모델로 진행이 될지는 남북한이 함께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 대해 남한의 중소기업이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포괄적 분석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최근 IBK 기업은행의 북한경제센터가 2018년 6월 4일부터 15일 사이 200개 중소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2018.7)의 결과로 이를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우선 남한의 기업인들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74.5%는 평화체제 구축으로 남북경협이 남한에 큰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71%는 남북경제협력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65%는 남북경제협력이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있다. 중소기업의

남북경협의 효과에 대해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북경협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소기업의 49.5%는 남북경협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으며, 28.5%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다. 나머지 22.0%는 보통이라고 밝혀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남북경협의 효과에 대한 기대수준보다 실제 참여 의사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중소기업은 어떤 이유로 남북경협 사업에 참가하려고 하거나 참가하고 싶어하지 않는가? 복수응답을 허용한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 조사의 결과는 중소기업이 남북경협 사업에 참여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기업의 이윤과 사업의 효율성에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남북경협이 한반도 차원의 번영에 기여할 것임에는 분명하더라도 실제 경협사업이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에의 참여를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료: IBK 기업은행 북한경제연구센터

중소기업의 남북경제협력을 위해 사업을 위한 제도적 안정과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담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CEO 들은 ‘전기, 통신, 교통의 정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투자보호장치 마련’을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기업이 투자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초적 사회기반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금융서비스가 국제적 기준에 맞게 제공되는가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 군사적 갈등으로 인해 개성공단이 갑작스럽게 중단되는 것을 목격한 기업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투자가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중소기업의 남북경제협력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사업>



자료: IBK 기업은행 북한경제연구센터

중소기업인들은 남북경협이 재가동될 때 사업환경이 제도화되고 국제무역의 기준에 많은 인프라가 확충되기를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경협이 지나치게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진행된다면 그 효과가 크지 않을 뿐더러 비효율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남한 정부뿐만 아니라 북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단순 지원이 아니라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국제사회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금융을 포함한 시장경제활동의 기초 조건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조사는 주로 남북경협 사업이 북한에서 추진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 재가동 방식이 과거의 프레임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남북경협은 반드시 북한에서만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경우 북한주민이 남한의 기업에 근로자로 취업을 하거나 연수를 하는 것도 새로운 남북경협의 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수, 연구자, 학생들의 교류를 통해 남북경협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삶의 개선과 남북한의 번영을 위하여 남북한의 정책결정자들이 과거의 프레임과 다른 접근방식을 과감하게 적용하기를 바란다.

3. 남북경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화구축

남북경협이 재가동될 수 있는가 또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가는 우선 대북제재를 어떻게 우회하거나 해제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다. 현재의 국제정치적 환경을 고려할 때 가장 원칙적인 대답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미관계의 개선이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에서 약속한 사안들을 남북미 정상이 잘 이행한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대폭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각국의 국내정치적 환경에 의해 약속 이행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남북미 협력이 다소 느슨해질 수 있음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북제재 해제와 한반도 비핵화(또는 종전선언)를 이루지 못하면 한반도의 평화는 이를 수 없는 것이고 남북경협은 추진될 수 없는 것인가? 한국전쟁과 70년간 이어온 분단체제에 의해 내재화된 남북한 사회의 폭력적 구조를 해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전통적인 인식체계에서 평화의 핵심임에 분명하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남북한이 이뤄나가야 할 평화는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선 남북한이 적대적으로 서로를 ‘낙인찍기’ 위한 대결적이고 혐오적인 언어의 사용을 자제함으로써 지금보다 더 수용적인 평화문화를 육성시켜야 한다. 남북한 사회가 막연한 두려움에 상대를 악마적으로 인식하는 문화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물론 남북경협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야만적 소통의 방식보다 문명적 소통의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로 소통할 수 있을 때 냉전적 관계의 틀을 벗어나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남북한의 힘으로 완전히 해제할 수 없다면, 남북한이 그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추진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남한에서는 우선적으로 판문점선언에 따라 동해선 철도연결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고, 남북경협의 본격화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북경협은 남한의 북한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 공동개발의 형식을 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비무장지대를 어떻게 평화지대로 전환시킬 것인가에 대한 군사적 실무회담이 성공적이어야 한다. 비핵화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군사적 밀도가 세계적으로 높은 비무장지대의 군부대를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 지뢰 제거는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남북한주민의 통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 남북한이 논의하고 제도화해야 할 것들이 매우 많다. 그리고 이것들은 국제사회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 전통적인 평화체제구축의 의제들도 병행해서 논의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4. 남북경협을의 방향

일방의 요구와 이익만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남북한 당국의 입장과 남북한 주민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결정자들이 정치적 이해에 의해 남북경협을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 남북경협은 남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남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남북경협을 재가동하면서 남북한이 서로 바라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이 유엔전략계획을 통해서 북한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내용을 밝히고 있지만, 실무당국자 간 협의에서 이를 분명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해 대규모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이 요구되는데, 이 과정에서 부동산의 점유, 소유, 임대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동산을 무계획적으로 점유하여 도로와 철도, 전기, 통신 시설의 효율적 확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들이 단기적인 사업에 의해 지장 받지 않도록 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남북한 개발협력은 파일럿 프로젝트와 패키지 프로젝트를 구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대규모 마을 건설 등은 정부와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참여하지만, 새로운 사업의 발굴을 끊임없이 기업과 시민사회가 추진하는 것이다. 대규모 공단 사업도 필요하지만, 북한주민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필요한 개발협력 사업의 발굴을 위해 기업과 시민단체 차원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남북경협 사업의 효과는 단기간에 확보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북한의 주민들이 경제활동에서 이윤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소규모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대학에서 혹은 지역사회에서 소규모 아이템 창업을 하고, 그것의 시장을 개발하는 경험을 공유한다면, 북한사회의 경제활동이 빠른 시일 내에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식공유를 위한 남북한 대학교류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은 한반도 차원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다. 북한에서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남한주민들이 북한을 여행하고, 북한에서 제도적 문제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북한주민들도 남한에서 관광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남북한이 정상국가로서 국제적 기준에 맞게 경제교류협력을 하는 것이 다시 시작하는 남북경협의 틀로 자리잡고 궁극적으로 남북한경제공동체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남북 어문 규범 통일에 대한 관견

홍 윤 표

1. 언어 관련 남북 학술 교류의 주된 관심 : 어문규범 통일

- 초기에 어문 규범이 통일의 주된 내용이 된 이유
- ① 국제표준기구(ISO)에 공동으로 우리글 코드를 등록시키기 위해 남북 공동의 문자 이름, 자모 이름, 자모 배열순서 필요
- ②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위해 표기법, 배열순서, 문법정보 등 어문규범에 대한 통일안 필요

2. 남북 어문생활에서 어문 규범의 문제

(1) 어문 규범 통일의 중요성 문제

- ① 남북 언어규범의 차이로 남북 의사소통에 큰 장애는 거의 없다. 남북 사람들이 상대방 글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남북 통일을 위해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사항은 아니다.
- ② 의사소통의 가장 큰 장애는 남북이 사용하고 있는 어휘다.
- ③ 따라서 남북 공동 사전이 필요하다.
- ④ 그런데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는 어문규범의 통일이 필요하다.

※ 어문규범 : 현실적으로는 시급한 문제가 아닌데, 의사소통의 기본인 남북의 어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전편찬이 필요하고, 사전 편찬을 위해서는 어문규범이 필요한 모순이 발생.
※ 결론 : 어문 규범 통일은 필요하나, 겨레말큰사전만 제외하면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

(2) 어문 규범 통일의 과정

- ① 어문규범에서 맞춤법은 어두 ㄹ ㄴ 표기와 사이시옷을 제외하고 대부분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이 있어 몇 가지 과정만 거쳐서 통일을 할 수 있다.
- ② 남북 국민들에게 공포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 ③ 세계의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타당성을 입증 받아야 한다(특히 중국 우리 동포들은 별도의 어문규범이 있다).
- ④ 어문규범 개정은 어문생활 및 경제계에 지대한 영향을 주므로(간판, 도로 표지판, 출판 등) 장기간(약 20년간)에 걸쳐 2년에 하나씩 작은 문제부터 남북이 각각 공포하여 통일시켜 20년 뒤에는 남북이 통일된 맞춤법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편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3. 국제고려학회 프라하 국제학술대회에서 해야 할 일

이러한 어문규범의 특성으로 보아 2019년도 국제고려학회 프라하 학술 대회에서는 어문규범 통일 방안보다는 통일 방법을 논의하고 또한 어문 규범 이외에 우리 어문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논의하여야 할 의제를 정리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어문규범 통일의 문제

(1) 이미 합의한 내용

- ① 자모 ② 띄어쓰기 ③ 문장부호 ④ 문법 관련
- ⑤ 형태 표기

(2) 합의하여야 할 내용

① 문자의 명칭

	이름	이유	시안	시안의 이유
남	한글	한국의 글	한글	'한국'은 '대한제국'이나 '대한민국'의 준말이 아니다. '삼한국'의 준말이다.
북	조선글	조선의 글		

- ① 『삼국지』의 '위지 동이전(魏志 東夷傳) ((중국의 진수(陳壽) 편찬(280- 289년) "辰韓在馬韓之東 其耆老傳世自言 古之亡人避秦役 來適韓國"(진한은 마한의 동쪽에 있다. 그 노인들이 세상에 전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옛날에 진나라 노역을 피하여 온 사람이 한국에 왔다)
- ② 국제표준기구(ISO)에 코드 이름이 'Hangul'로 등재되어 있음.

② 옛자모의 명칭 및 배열순서

	옛자모	남	북
자음	ㄱ	가벼운 비읍, 순경음 비읍, 비읍 순경음	
	△	반시옷, 반치읍	
	ㄴ	된이읍, 여린 히읍	
	ㅇ	옛이읍	
	ㅇ	가벼운 피읍, 순경음 피읍	
	ㅁ	쌍으	
	ㅂ	쌍이읍	
	ㅅ	쌍히읍	
	◇	마름모 미읍	
모음	ㅐ	가벼운 쌍비읍, 순경음 쌍비읍, 쌍비읍 순경음	
	ㅑ	아래아	
	ㅓ	아래애	
	ㅕ	쌍아래아	

③ 우리글의 부분 명칭(우리글 교육 및 서체, 디자인에서 절대 필요)



<김진평 교수의 '한글의 글자표현'>

- 디자인이나 서체 중심의 명칭. 문자학적으로 연구된 적이 없음
- 문화부에서 정리한 안
- ① 줄기 : 가로줄기 : 위가로줄기, 가운데가로줄기, 아래가로줄기
 세로줄기 : 원세로줄기, 오른세로줄기
 둥근줄기
 삐침줄기 : 왼삐침줄기, 오른삐침줄기

- ② 점 ③ 머리 ④ 꺾임 ⑤ 돌림 ⑥ 맺음

(3) 합의하지 못한 내용

- ① 두음법칙 문제
 낙원 - 락원, 녀자 - 여자 등의 표기에서 어느 표기를 선택하느냐 하는, 어두의 'ㄹ' 표기와 'ㄴ' 표기 문제
 두음 법칙 표기 문제는 아마도 남과 북이 서로 양보하려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충격이 큰 결정이어서 남북 학자들도 매우 난감해 하는 내용이다. 통일을 하여야 할 내용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내부적 충격으로 비난을 받을 소지가 대단히 큰 요소이어서 함부로 결정적 내용을 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복수 표준으로 정하여 쓰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 ② 사이시옷 표기 문제
 햇빛 - 해빛, 냇가 - 내가, 장맛비 - 장마비 등에서 어느 표기를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
 ※ 1음절 뒤에는 ㅅ을 붙이고 2음절 뒤에는 ㅅ을 붙이지 않는 방법
 냇가, 햇빛, 장마비, 낙시대

(3) 논의도 하지 못한 내용

- ① 외래어 표기법
- ② 로마자 표기법

어문규범에서 남과 북의 차이가 심함 :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5. 앞으로 논의해야 할 내용

(1) 남북 공용 우리글 서체 개발

- 남북의 서체에 차이가 있음 (예: ㅍ)



<최원삼(1985), 붓글씨, 교육도서출판사>

- 거래말큰사전 출판 시의 문제점 : 남북 공동 개발 서체가 없음
- 남북이 공동 출판할 때의 공동서체 개발 필요

(2) 남북 학술용어 대조표 작성과 통일 방안

- 남북 의사소통의 장애 요소

- ① 일반 어휘 (다른 방언 어휘와 마찬가지로)
- ② 전문용어(학술용어)

남북 언어 차이 중 가장 차이가 많은 것은 학술용어(또는 전문용어)임
따라서 학술용어 남북 대조표가 필요함

예 : 의학용어

	원어	남	북
1	abadomen	배, 복부	배, 복부
2	abiotrophy	무활력, 위축	변성, 활력위축
3	ablation	절제	절단(술), 척출(술)
4	aboral	입에서 먼-, 입과 반대쪽-	입반대쪽의, 입에서 먼
5	abortion	유산, 낙태	류산, 락태
6	abrasion	찰과상 개꺼상처, 마멸	박리, 소파
7	abscission	절제, 절단	(부분) 절단(술)
8	absorption	흡수, 흡착	흡수
9	acetification	아세트화, 초산화	초산발효, 초산생성과정
10	achromatopsia	완전색맹	색맹

(3) 휴대전화에서 우리글 입력 방안 통일 문제
천지인 삼재 타법 등

(4) 남북 방언 조사
기존에 남의 국립국어원과 북의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가 공동
조사하던 일을 계속하는 편이 좋을 것임

(5) 자료 교류

6. 과제

(1) (가칭) 민족어 발전을 위한 남북 공동위원회 구성
개성 또는 판문점 등, 또는 국제고려학회 내

(2) 공동논문집 간행

○ 남북 학자들이 같이 논문을 게재할 수 있는 논문집 : 국제고려학회 논문집

○ 남북의 언어학자들이 동시에 논문을 실을 수 있는 논문집 : 중국 조선어문

○ 남북의 언어학자 공동논문집 발간은 당장 가능한 일임

그러나 남의 여건으로는 이미 쓰인 논문 중에서 선별하여 실을 수도 있음

○ 공동 집필 연구서도 가능함 : 예컨대 국어 어휘론

7. 디지털 시대 어문 문제에 대한 대응

- (1) 문서 작성기 공동 개발
- (2) 어문 규범 변환기 공동 개발
- (3) 남북 타자기 자판 통일
- (4) 음성인식기 공동 개발
- (5) 문자인식기 공동 개발 등

8. 맺는 말

북남언어규범의 통일에서 나서는 언어학적문제

문영호 (조선사회과학원)

1. 북남 언어규범차이의 본질에 대한 언어학적리해

문제점: 해방후 70 여년동안에 북과 남의 언어차이는 매우 극심한 상태에 이르렀다. 사회와 학계의 일부에서는 현재의 북남언어차이를 그대로 두면 민족어가 분열될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현실적으로 남측의 출판보도물과 해설글, 상품안내글, 광고글 등 모든 분야에서 민족어가 아닌 외래어들이 수없이 쏟아져나오고있으며 의약품이나 화장품같은 대중소비품의 안내글들은 번역, 통역이 있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나 해방후 북과 남이 완전격폐된 상태에서 70 년이 지났고 언어차이가 그토록 우심한 상태에서 북과 남의 사람들이 처음 만났어도 그 어떤 언어장벽을 감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과 뜻이 통하여 스스럼없이 말을 주고받는다.

이러한 판이한 두 현상을 놓고 북남의 언어차이의 본질을 파헤쳐보아야 하며 그에 따라 북남언어차이의 본질과 해결방도를 인식확정해야 한다.

1.1. 북남언어차이의 본질

① 자연언어상태의 우리 민족어의 특성은 북과 남의 언어에서 보존되고있으며 일상 언어교제에서 그것이 활용되고있다.

일반언어학의 원리로 볼 때 그 어떤 민족어나 기본어휘와 문법구조가 보존되어있으면 그 언어는 자기의 고유성, 독자성이 살아있는것으로 인정하고있으므로 북남의 언어는 아직 이질화되지는 않았다.

② 북남의 언어차이에서 기본은 해방후 인공적으로 외래어, 잡탕들을 끌어들이어 언어생활, 언어문화, 언어규범을 혼탕시켜놓은데서 생겨난 후과이다. 북남의 언어에서 기본을 이루는 자연언어상태의 민족어의 순결성을 고수, 보존, 발전시키면서 인공적으로 끌어들이는 외래어, 잡탕말들을 가셔내는것이 최선의 방도이다.

2. 북남언어규범의 통일에서 나서는 언어학적문제

2.1. 글자규범문제

조선글자의 이름, 글자수, 글자차례의 차이와 단일화문제

- 글자이름문제: 조선글과 한글로 갈라져있어 국제표준화규격등록, 보급에서 매우 큰 부담과 복잡성을 조성하고있다. 특히 컴퓨터에 의한 문자정보처리등록에서 이 문제는 뒤로 미루기 곤란한 문제이다.
- 글자수와 차례문제: 북의 40 자와 남의 24 자의 자모체계는 글자수에서만 아니라 글자배열차례에서 매우 큰 차이를 빚어내고있다. 문자자료의 자모순배열, 문자코드화, 사전편찬 등에서 직관적으로 완전히 다른 배열순서와 후과를 빚어내고있다.

2.2. 이른바 《두음법칙》 문제

단어의 첫머리에서 《ㄹ, ㄴ》을 바로 표기하는 문제

《로동-노동》, 《녀자-여자》, 《력사-역사》 등의 표기차이는 북남의 언어규범차이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으로서 이 문제를 역사언어학적, 어음문자학적으로 타당한 단일화안을 연구 실현시키는 문제는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과업이다. 문제는 조선사람이 예나 오늘이나 과연 단어첫글자 《ㄹ, ㄴ》을 발음할수 없는가, 옛조선말이 과연 알타이어족에 속한다는 주장과 그 어족의 《두음법칙》이 우리 민족어에도 내재하고있다는 견해가 맞는가 하는것을 밝히는것이다.

2.3. 사이시옷(기발-깃발)문제

조선말발음의 고유한 특성의 하나인 말뿌리사이에서 생겨나는 된소리를 비문자부호(보충 문자부호)로 표기하는가, 마는가 하는 문제는 극히 예민하고 복잡한 사회언어학적문제이다. 만약 이른바 《사이시옷》을 표기하기 시작하면 어데까지 하며 그 한계점을 어디에 두겠는가 하는 복잡한 서사방식문제가 제기된다. 더우기 교착어인 우리 언어에서 《해발》에 사이시옷을 주어 《햇발》로 표기한다면 조선말 말뿌리, 단어에는 결국 《해》와 《햇》의 두가지 말이 생기는 폐단이 나타나게 된다.

2.4. 형태표기문제

해방후 서사규범원칙에서 북은 형태주의원칙을 내세웠고 남은 표음주의원칙을 기본으로 한 데서부터 수많은 단어표기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실례로 북에서 《송곳이, 금이발》로 쓰는것을 남에서는 《송곳니, 금니빨》로 쓰거나 북에서 외래어 《비루스, 에네르기》로 쓰는것을 남에서는 《바이루스, 에너지》로 쓰는것을 들수 있다.

이러한 형태표기차이는 현재 1 천여개이상의 단어에서 나타나며 더우기 형태표기규범이 시대에 따라 여러번 달라지는 폐단이 나타나고있다.

2.5. 언어리론과 언어학용어문제

북에서는 《토, 격토, 이음토 ...》로 쓰고 남에서는 《조사, 격조사, 보조사》등으로 쓰며 북에서는 《속격, 대격, 형태부 ...》로 쓰는것을 남에서는 《관형격, 목적격, 형식형태소...》로 쓰이면서 그 개념정의를 달리 하는것을 비롯하여 많은 차이를 보이고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부터 생겨나는 북남의 언어규범의 차이는 수백개항목에 달하며 그것을 단일화하는 문제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제로 나선다.

3. 북남언어규범의 통일에서 나서는 실천적문제

1) 언어의 우수성과 민족적특성을 반영한 우리 말 자원들을 최대한 발굴정리하고 전자화하여 적극 교류, 활용하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앞서서도 본것처럼 북남의 언어차이를 단일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도는 우리 민족어의 특성과 기능을 부단히 높여 외래적인 언어요소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데 있다.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에서는 100 만개이상의 어휘자원을 발굴정리한 《조선말어휘총람》(일명 《조선말술어백과사전》)을 비롯하여 《조선말방언사전》, 《고장이름사전》, 《학술용 어집》, 《조선말대사전》(전 4 권)을 비롯한 여러 종의 언어자원제품들을 개발완성하였다.

오랜 역사적기간에 우리 겨레가 창조리용한 언어자원들을 발굴정리, 전자화하여 보급하는

사업은 북과 남, 해외가 힘을 합쳐 계속 진행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2) 국제규격화기구나 학회들에서 우리 민족어가 둘이 아니라 단일한 하나의 언어문자라는 것을 확인, 등록하도록 하는데서 제기되는 조선문자정보화규격과 단일표기원칙, 규범들을 실현하는데 특별한 힘을 넣어야 한다. 국제무대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조선글과 조선말을 정보화, 규격화, 교육, 보급하는 사업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는데 맞게 초보적으로 우리 민족문자의 이름, 자모수, 자모배열차레와 같은 문제들을 북남의 언어규범통일에서 특별히 선차적인 문제로 내세우고 해결해나가야 한다.

3) 언어학분야에서 민족어규범단일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학술토론회, 자료교류, 공동연구사업에 힘을 넣어야 한다.

《겨레말큰사전》북남공동편찬사업이 하나의 전례로 되고있으나 사전편찬만이 아니라 민족어의 통일적발전을 위한 언어학학술교류사업도 보다 다각화해나가야 한다.

4) 당면하여 북남규범통일문제에서 절실하면서도 실현가능한 문제들을 선택하여 진지하고 성의있는 토론을 거쳐 하나씩 풀어나가는 실제적인 학술교류공간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언어규범은 말그대로 글말생활의 규범이면서 해당 사회성원 모두에게 의무화되고 관습화된 것이기때문에 북남의 언어규범통일을 실현한다는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문제도 아니다. 북과 남의 언어학자들, 관련학자들이 오늘의 현실에서 북과 남에서 서로 부담이 적은 문제들, 북남, 해외에서 다같이 호응하는 문제들을 선택해결하여야 하는것이다.

실례로 순수 국제적인 문자정보화문제에서 등록하는 우리글 이름, 글자수, 차레 같은것은 사실상 현행규범을 다치지 않으면서 단일화할수 있으며 북과 남에서 서로 지난 기간에 엇바뀌가며 써오던 형태표기(실례로 《누더기/누데기, 엉덩이/엉덩이, 해방동이/해방동이, 알루미늄 /알루미늄 등》)들과 각종 사전올림배열순서에서만 자모체차레를 단일화하는것 등이다.

남북 언어 통합 과제의 현황과 방향

권재일 (서울대학교)

1. 남북 언어 통합 워크숍의 목표

- 남북 언어의 차이로 일어나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 이를 위한 남북 및 국외 학자들 간의 공동 연구의 방향과 과제를 토의하여, 제 14 차 코리아학 국제학술토론회(2019 년, 프라하) 공동 학술 심포지엄을 구축한다.

2. 남북 언어 통합 과제의 현황과 방향

2.1. 현황과 쟁점

- 남북은 분단 이후 일상 생활용어로부터 전문용어에 이르기까지 상당수 어휘가 차이 나며, 표기법도 부분적으로 서로 다르며, 언어문화의 차이로 화법의 특징도 서로 다르다.
- 남북 어휘의 차이는 주로 광복 이후에 생겨난 말에서 나타난다. 남북의 언어문화 차이로 감사, 요청, 거절, 사과 등과 같은 화법에서 남측은 주로 간접 화법이, 북측은 주로 직접 화법이 쓰여 상호 대화에서 갈등의 요인이 된다.
- 남북 언어 통합은 무엇보다도 언어문화의 차이로 인한 소통 부재와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통합 사회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2. 언어 통합의 목표

- 의사소통: 통일 이후 남북 언어 차이를 극복하고, 이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보급·교육함으로써 통일 국가 국민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향한다.
- 언어문화의 보전·발전: 언어 표준 체계 통합을 통하여 민족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한국어-조선어를 제대로 가꾸고 지키는 것을 지향한다.

2.3. 언어 통합의 원칙

- 평화적 통일을 전제로 하여 남북의 언어 차이를 서로 존중하는 한편,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한다.
- 남북 언어 통합에는 언어학적 합리성을 존중하며, 언어생활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실천 가능한 언어 표준 체계를 제정한다.

3. 남북 언어 통합의 추진 과제

[1-1] 언어 통합의 기본 정책 수립

- 남북 언어 실태 조사 및 언어 통합 기반 구축: 기존의 남북 언어 실태 조사를 분석하여 보완할 부분을 찾아 언어 사용 실태를 비교하여 언어 통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동시에, 문어 및 구어 자료 말뭉치를 확대 구축하여 언어 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 법령 제정, 조직 정비, 교육기관 및 상담기관 설치

[1-2] 생활용어 표준화

- 남북이 서로 다르게 사용하거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하는 일상 생활용어를 대상으로 표준화하여 교육·보급한다. 기존 연구 성과인 ‘겨레말큰사전’에서 제시한 표제어와 뜻풀이를 근거로 할 수 있다.
- 남북이 서로 다른 표기로 사용하는 생활외래어를 대상으로 표준화한다.
-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외국어를 대상으로 고유어나 쉬운 한자어로 다듬어서 교육·보급한다.
- 생활용어 및 생활외래어의 표준화 방식은 (1) 남측의 어휘로, (2) 북측의 어휘로, (3) 새로운 어휘로, (4) 복수 어휘로 한다.
- 표준화한 내용은 국어학자, 국어정책가, 언론인을 포함한 각계 다양한 인사로 구성된 언어 표준 검증단을 통해 검증하여 최종 확정한다.
- 표준화한 생활용어는 ‘표준용어자료집’ 및 ‘표준외래어자료집’을 제작하여 보급하는 동시에 인터넷, 스마트기기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표준화 방식, 검증 및 확정 방식, 보급 방식은 이하 다른 항목에서도 같다.]

[1-3] 공공언어 표준화

- 빈도가 높고 생활 밀착적인 행정용어, 지명 및 인명 가운데 남북이 서로 다른 것을 가려내어 표준화하여 교육·보급한다.

[1-4] 교육용 전문용어 표준화

- 남북의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비교하여 서로 다른 교육용 전문용어를 가려내어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합하여 표준화한다.

[1-5] 학술/산업 전문용어 표준화

- 학술 전 분야 및 산업 현장의 전문용어를 통합하여 표준화한다.
- 전문용어는 관련 분야 내부 소통과 산업발전을 위해 표준화가 필요하므로 통합 비용을 최소화하고 언어의 장기적 발전을 고려하는 원칙에 입각한다.

[2-1] 표준어와 문화어 표준화

- 남북이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일반어휘를 대상으로 표준화하여 국가언어자원으로 관리한다. 기존 연구의 성과인 ‘겨레말큰사전’에서 제시한 표제어와 뜻풀이를 근거로 한다.
- 표준화한 내용은 ‘표준대사전’을 구축하여, 사전편찬자와 사전사용자가 함께 수정·보완하여 어휘를 더욱 효과적이고 풍부하게 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인터넷, 스마트기기 프로그램으로 개발·보급한다.

[2-2] 표준발음 표준화

- 남북의 표준발음법 중 차이 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자음, 모음, 길이-높이-세기 등을 가려 뽑아 표준화하여 교육·보급한다

[2-3] 표기법 표준화

- 남북이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표기법을 표준화하여 국가표준표기법을 관리한다.

- 주요 내용: 띄어쓰기, 사이시옷, 두음법칙, 개별 어휘 표기 등을 포함한다.

[2-4] 외래어 표기법 표준화

- 남북의 외래어 표기법 규정을 표준화하여 국가표준표기법을 관리한다.

[2-5] 로마자 표기법 표준화

- 남북의 로마자 표기법 규정을 대조하여 영역별로 차이점을 제시한다.
- 표준화한 로마자 표기법을 국외에도 보급하고 적극 홍보하여 국가의 지명, 고유명사 표기를 정비한다.

[3-1] 문해·문식 능력 향상

- 기존의 남북 각 학교별, 각 지역별 문해·문식 능력 향상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표준화 정책을 수립한다.
- 장기적인 문해·문식 능력 향상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3-2] 화법 차이 극복, 의사소통 능력 향상

- 기존의 남북의 언어문화와 화법 특징을 비교·분석한다. 특히 ‘감사, 사과, 거절, 요청’ 등의 화법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 남북의 언어문화와 화법 특징을 통해 상호 이해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할 표준화 방안을 제시한다.

[3-3] 언어와 문자를 통한 민족문화 보전·발전

- 남북 언어를 통한 민족문화 발전 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한다.
- 남북에 흩어져 있는 고문서의 목록을 작성하고 해제를 덧붙여 보전과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3-4] 언어소수자(시각장애·청각장애) 지원

- 남북의 청각 및 시각 장애인 언어·문자 체계인 수화언어와 점자에 대한 기초 실태를 조사한다.
- 남북의 청각장애자의 언어 체계인 수화언어를 표준화하여 농인이 언어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안을 제시한다.
- 남북의 시각장애자의 문자 체계인 점자를 표준화하여 맹인이 언어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안을 제시한다.

[3-5] 외국어로서 한국어-조선어 교육 지원

- 국외 및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남북의 외국어로서 한국어-조선어 교육 현황 실태 조사 및 통합 기반을 구축한다.
- 외국어로서 한국어-조선어 교육 정책 통합을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세종학당’을 포함한 국외 및 국내 교육지원기관을 개편한다.
- 국외 및 국내 외국어로서 한국어-조선어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을 확대 설치하고, 교육과정 개발, 교육인력 양성에 힘쓴다.

【참고 문헌】

- 구현정·권재일·전정미·양수경 (2016) 「남북한 의사소통 방식 차이 극복 방안 연구」 통일준비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상명대학교 천안 산학협력단.
- 권재일 (2006) 「남북 언어의 문법 표준화」『서울대학교 한국학 연구총서_20』, 서울대학교 출판부.
- 권재일 (2014) 『남북 언어의 어휘 단일화』,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문오·전수태 (2007)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
- 김선철·김건희 (2008)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2』, 국립국어원.
- 김선철 (2009) 「국립국어원의 북한어 연구 현황에 대하여」『2009년 남북 언어 학술대회 논문집』, pp.15-23, 국립국어원.
- 남기심 (2002) 「남북 언어의 이질화와 그 극복 방안」『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 1차 남북 국제 학술 회의 논문집』, pp.7-12, 국립국어연구원
- 문영호 (2002) 언어의 민족성을 구현하는 것은 우리 말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기본 방도『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 1차 남북 국제 학술 회의 논문집』, pp.14-22, 국립국어연구원.
- 박종선·도원영·최호철·최경봉·한정미·이상혁·강진웅·이대성 (2016) 『2016년 남북언어의식 조사보고서』, 국립국어원.
- 양수경 (2013)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승재 (2002) 『남북 언어 순화 자료집 1, -남과 북이 서로 같게 순화한 용어를 중심으로-』, 국립국어연구원.
- 이승재 (2003) 『남북 언어 순화 자료 협의를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 이찬규·양명희·임현열·최유숙·이대성 (2014) 『남북 언어통합 종합계획 수립』, 국립국어원.
- 최호철 (1999) 「남북한 언어의 통일을 위한 과제 -국어 정책 부문-」『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1, pp.36-95,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 홍중선·최호철 (1998) 『남북 언어 통일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3.5. 문장부호

(가) 남에만 있는 부호: 가운뎃점(·), 빗금(/), 중괄호({}), 빠짐표(□)

(나) 북에만 있는 부호: 같음표(〃), 반두점(∴)

(다) 명칭에 차이가 있는 부호: 온점/점(.), 쌍점/두 점(:), 소괄호/쌍괄호(()), ...

3.6. 품사분류

(가) 품사분류:

남: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북: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동사

(나) 조사와 어미: 토 ('토'의 범위)

(다) '이다'

(라) 그리고, 그러면, 그렇지만

(마) 수량관형사(한, 두, ...)

(바) 지시관형사(이, 그, 저)

3.7. 기타

(가) 모음 어미 '-여, -였'의 표기:

남: '하-' 뒤에서만

북: 여간이 모음이 'ㅣ ㅞ ㅟ ㅢ ㅣ ㅤ'인 경우

(나) 한자어 모음 'ㅞ'의 표기: 連袂(연메/연메), 廢品(폐품/폐품)

4. 발음의 표준화

남: '표준어규정'의 '표준 발음법'(1988년)

북: '조선말규범집'(1966, 1988, 2010)의 '표준발음법'/'문화어발음법'

(가) 모음: ㅟ/ㅢ, 한자음의 'ㅞ', (ㅡ)

(나) 자음: 두음법칙, 겹받침(ㅃ), (맛있다/멋있다)

5. 외래어 표기법 표준화

남: 외래어표기법(1986, 1992, 1995, 2004, 2005, 2014, 2017)

북: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1956), '외국말적기법'(1985년)

(가) 국제음성기호(IPA)와의 대조:

자음의 표기: 파열음 표기(된소리 사용 여부), Ǿ, s, mm, nn

모음: ʌ, εə

(나) 표기세칙: (남) 18개 언어, (북) 8개 언어

6. 로마자 표기법 표준화

(가) 로마자 표기의 기본원칙:

남: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1984, 2000, 2014)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북: '외국자모에 의한 조선어 표기법'(1956)

“외국자모로써 조선어를 표기함에 있어서는 조선 음운을 충실히 반영시킴을 원칙으로 하

되, 조선어 받침을 중심으로 하는 어음교체 현상과, 조선어음의 결합적 변화만은 변화되는 대로 표기한다”

(나) 남북의 차이:

자음: 평음, 경음, 격음의 표기

ㄱ(g,k/k,g), ㅋ(k/kh); ㄷ(d,t/t,d), ㅌ(t/th); ㅂ(b,p/p,b), ㅍ(p/ph);

ㅈ(j/ts,dz), ㅉ(jj/tss), ㅊ(ch/tsh)

모음: ㅏ(eo/ö), ㅓ(eu/ü), ㅕ(ae/ai), ㅛ(yeo/yö), ㅜ(wo/wö), ㅟ(oe/oi), ㅢ(ui/üi)

(다) 1996년 국제표준화기구(ISO) 요청으로 로마자 표기법 남북단일안 합의: TR11941

모음 표기는 합의 되었으나, 자음은 남북의 안이 함께 실림.

--> 세계표준(International Standard)로 전환되지 않아 2002년 자동 폐기.

7. 맺음말

【참고 문헌】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2009) 겨레말큰사전 보고회 자료집.

국어사정위원회(1988) 『조선말규범집』,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국어사정위원회(2000) 『조선말 띄어쓰기규범』.

국어사정위원회(2003) 『띄어쓰기규정』.

국어사정위원회(2010) 『조선말규범집』.

김일성(1966)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옹계 살려 나갈데 대하여, 『문화어학습』 1968년 3호, 1-9.

문체부고시 제 2017-12 호, 한글맞춤법.

문체부고시 제 2017-13 호, 표준어규정.

문체부고시 제 2017-14 호, 외래어표기법.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1971) 『《조선말규범집》해설』,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일본에서의 ‘아리랑’ 이미지 수용의 양상

고정자 (고베대학)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래를 넘어 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것도 말하자면 센티멘털적인 그런 노래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그렇게 찢겨진 것, 찢겨진 사람들의 노래였다. (김달수 “우리의 아리랑 노래” 에서)

1. 들어가면서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남북 통일팀이 통일기와 함께 입장하는 모습은 우리 민족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동시에 통일팀의 국가가 ‘아리랑’임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 번 우리 민족의 공통적인 노래임을 되새겨 주었다.

앞의 글은 김달수 작가가 1977 년에 간행한 “우리 아리랑의 노래”에서의 인용문이다. 김달수는 ‘아리랑’을 부부나 가족이라는 개개인 뿐만 아니라 ‘조선이란 조국까지 찢겨져 해체되고 식민지로 되는 과정’ 에서 탄생한 노래라고 인식하였다. 적어도 일본에서는 1970 년대까지 ‘아리랑’을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아리랑’을 음악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 담론으로 풀어보자는 시도이다. 찢겨진 노래나 이별의 노래에서 민족의 노래, 통일의 노래로 아리랑이 인식될 때까지 변천 과정을 더듬어 가려고 한다. 다시 말해 ‘아리랑’에 대한 담론이 일본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어떻게 변했는가를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일제시대 일본에서 ‘아리랑’이 어떻게 담론화 되고 해방 후에 어떻게 소비되어 왔는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아리랑’을 낳은 장본인인 일본에서 아리랑을 어떻게 이용해 왔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 작업을 통해 ‘아리랑’의 담론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본에는 남북 정부를 서로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조선반도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사회적 일들이 직접적으로 일본사회에 반영한다. 그러므로 일본에서 ‘아리랑’ 이미지의 변천 과정을 살펴 봄으로서 문화 담론의 변천 과정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본 연구의 틀과 방향성 제시를 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일본에서 ‘아리랑’에 관한 연구를 살펴 본다. 그 다음에 본 연구의 방향성에 대해 제시하려고 한다.

2. 일본에서 수용된 ‘아리랑’

2.1. 일제 식민지 시기의 아리랑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노래 안에서 제일 잘 아는 노래를 물으면 아마 압도적으로 ‘아리랑’ 이라고 할 것이다. 일본사회에서 ‘아리랑’이 어떻게 수용되었는가를 살펴 보려면 우선 일제시대부터 볼 필요가 있다. ‘아리랑’이 일본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일제시대부터이다. 물론 ‘아리랑’ 노래가 매력적인 것도 있지만 유명한 작곡가 고가 마사오(古賀政雄)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고가는「조선은 나의 제2의 고향입니다. 유구한 대륙적 요람 속에서 조선 민요로 키워진 내가, 음악에 익숙해 진 것도, 작곡에 흥미를 가지게 된 것도 필경 잊을 수 없는 조선민요 가락의 아름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면면한 여정, 그리고 가슴 속 깊은 것에 남는 여음, 사무치는 구슬픈 가락, 이것이 조선민요의 강렬한 특칭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노래에 ‘아리랑 노래’ (고가 마사오 「아리랑의 노래—朝鮮民謡에 대해서」에서) 가 있다고 했다.

이렇듯 고가의 조선 민요에 대한 ‘구슬픈 노래’라는 견해는 일본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이러한 견해는 일본에서 널리 알려져 식민지 조선에서도 가사를 바꾸어 알려진 ‘황성의 달’과 겹쳐서 일본인들에게 받아 들인 것이다. ‘황성의 달’은 옛날에 번영했던 것들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멸망해서 옛 그림자만 남아있다는 서글픈 정감을 부른 노래이고 그러한 감정을 아리랑에서 보았던 것이다. 그것은 마치 식민지 지배를 당하는 조선의 모습을 그린 것이었다. 이렇게 ‘아리랑’은 일본 사람들의 우월감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1930년대 제목에 아리랑이 붙은 유행가가 당시 유행곡의 발달과 함께 레코드 발매로 널리 퍼지게 된다. 예를 들자면 일본콜롬비아에서는 1931년 6월 ‘아리랑의 우타’ (노래 淡谷のりこ・長谷川一郎), 1936년 5월 ‘아리랑 야곡(夜曲)’ (西条八十作詩, 江口夜詩作曲, 松平晃노래), 1936년 11월 ‘아리랑 코우타’ (鈴木かほる作詩, 服部逸郎作曲, 京城百太郎노래), 1938년 7월 ‘아리랑 노래’ (天地芳雄編曲, 菊丸노래), 1940년 4월 ‘아리랑 불르스’ (西条八十作詩, 服部良一作曲, 高峰三枝子노래) 를 발매했고 비크터에서도 1935년에 ‘아리랑 야곡’ (板村真民作詩, 鈴木静一作曲, 渡辺はま子노래) 보리돌에서는 1934년 ‘아리랑 보슬비(時雨)’ (原田貞輔作詩, 原田誠一作曲, 渡辺光子노래)를 발매했다. 이처럼 당시 유명한 레코드 회사에서는 ‘아리랑’을 주제로 한 가요곡을 만들었는데 가요곡 세계에서의 ‘아리랑’은 단순한 이별의 상징으로 받아 들려졌다(미야즈카 1986: 86). 그와 동시에 아리랑은 조선을 상징하는 아이টে็ม으로 자리매김 하게 된다.

한편 일본에 있는 조선인들은 아리랑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아리랑의 탄생”이란 책을 펴낸 미야즈카에 의하면, 그 당시 일본에서 부족했던 노동력으로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이 「고되 노동을 달래기 위한 위로와 위안으로,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이나 사랑하는 애인들을 그리워하면서 “아리랑”이나 고향의 노래를 불렀다」(미야즈카 1985: 106) 고 했다. 여기서 들리는 노래 가락이 일본인에게는 「애절하고 슬픈」 것으로 들렸을 것이다.

그리고 ‘강제연행 조선인의 고통’이란 증언집에서도 아리랑을 부르는 장면이 나온다. 그 부분을 인용해 본다. 「판티 한 장에 트룟코, 밖에는 눈이 내리는 초 겨울. 다들 파란 색에 얼굴은 부어 있고, 뼈와 가죽만 붙은 깡마른 인간들」 극비로 진행된 터널 파는 노동에서 위험하고 어려운 일은 조선인 노동자의 몫이었다. 숙소나 노동복에 이루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차별 당하고, 중노동을 견디기 위한 식사는 하루에 두 끼, 아르미 그릇에 국 하나 반찬 하나, 밥은 쌀밥이 아니라 보리쌀이 3분의 1 이나 되는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낮에는 양지쪽에 모여 앉아 산물을 뜯어 먹으면서 아리랑을 눈물 흘리면서 부르고 있었다」 고 한다. 여기가 아오모리현 오하타의 산중, 지하공장건설장에서 소위 곡괭이 전사라고 했다. 당시 19살이었던 일본인 청년이 군속으로 징용되었을 때 철 제조공으로 현장을 방문한 때 목격한 조선인 노동자들의 비참한 모습과 그들의 유일한 위로는 아리랑을 부를 때만이었다고 한다(시부키 키이치로 1990).

하야시 에이다이(林えいだい)는 저서에서 미즈이산야(三井山野)탄광 주변에 아리랑 부락이 있었고 부락에서 탄광으로 가는 사이에 아리랑고개가 있었다고 한다. 「치쿠호(筑豊) 탄광 흔적지에는 당시 조선인 광부들의 추억이 남아 있어 십 수 처의 아리랑 고개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다. 물론 그것은 지도에는 없다. 엔가군 미즈마키초 우메노키(遠賀郡水巻町梅ノ木)와 기타큐슈 야하타니시쿠아사카(北九州八幡西区浅川)를 경계로 하여 언제까지나 아리랑 고개로 불리는 비탈길이 있고, 아주 가까운 곳에 속칭 아리랑 부락도 있었다고 한다」(하야시 에이다이 1987). 이외에도 일제시대 강제 동원 역사책에서 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은

앞으로의 과제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겠다.

그럼 본조아리랑은 영화 “아리랑”의 주제목인데 일본에서도 영화 “아리랑”이 상영되었을까? 되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1942년 4월 12일에 대일본 산업보국회 삿포로지방 탄광부회(大日本産業報国会札幌地方炭鉱部会)에서 발행한 「반도 영화 및 경성 무영대 알선에 관한 건(半島映画及京城舞踊隊斡旋ニ関スル件)」라는 문서를 보면 조선인 탄광부들을 위한 위문공연을 진행하였는데 그 안에는 영화 “아리랑”도 있었다. 그 외에도 탄광 노동자를 위한 위문단이 많이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아리랑이나 영화 “아리랑”이 어느 정도 상영되었는가 하는 것은 좀 더 자료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일반 공연에서도 조선의 무희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최승희도 「아리랑에 부치다」란 창작 무영을 썼었고, 당시 인기가 있었던 무영가 배우자(裴龜子)도 무대공연에서는 반드시 아리랑에 맞추어 화려한 춤을 선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공연을 본 「일본 사람이나 조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 관객들을 매혹했다」(미야즈카 1985:146)고 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일본사람들이 이미지한 아리랑과 조선사람들이 이미지한 아리랑은 달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리랑이 해방 후, 일본에서는 여전히 인식되었는가? 이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2. 통곡의 노래에서 희망의 노래로

일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조선 노래를 대라고 하면 당장 나오는 이름이 조선민요 ‘아리랑’이다. 1980년대 오사카에서는 인권교육의 교재로 조선민요가 실렸는데 그 노래가 ‘아리랑’ ‘도라지’이다. 그 중에서도 일본학교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세계 각국의 민요를 실리게 되면서, 우리나라 민요로 꼽힌 노래가 ‘아리랑’이다. 예전에는 가타카나로 가사가 씌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한글로 씌어져 있으며 가사는 일본 사람이 작사한 것이 실려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 안에서도 ‘아리랑’을 아는 애들이 있다. 이 부분도 음악 교과서에 아리랑이 언제부터 어떻게 실리게 되는가에 대한 조사를 앞으로 해 보려고 한다.

그렇다면 지식인들 안에서는 어땠을까? 1953년 10월에 미국인 작가 님 웨일즈(Nym Wales)가 쓴 “아리랑의 우타(노래)”를 안도 지로(安藤次郎)역으로 발간해서 부터 아리랑이 노래가 아니라 문화담론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 책은 안도 지로가 1969년에 또 다시 번역하여 이번에는 제목을 “아리랑의 노래”로 출판했으며 1987년에는 마즈다이라 이어코가 님 웨일즈와 김산의 공저로 출간하였다. 아시다시피 김산은 별명이고 중국에서 활동하던 혁명가 장지락(張志樂)이다. 이 때부터 아리랑은 항일·저항의 노래로 의미 부여가 되었다. 이에 대해 미야즈카는 아리랑이 조선 비극의 상징이면서 ‘죽음의 노래이지 생명의 노래는 아니다. 그러나 죽음은 패배가 아니다. 많은 죽음 속에서 승리는 거두어지는 것이다’라고 했다(미야즈카 1985:63). 다시 말해 이 책에 쓰인 김산이 삶이 바장하면서도 굳건한 저항의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

한편 재일코리안들에게 아리랑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있었을까? 발표자가 재일코리안 2세들에게 생활사 조사를 했을 때 한 분에게 아버님 이야기를 들었다. 이 분은 제주도에서 식민지 시기에 일본에 건너 왔는데 ‘우리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서 아리랑을 부르고 잠들었던 일들이 많았다’고 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1세대들의 아리랑에 대한 단편을 볼 수 있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례가 있다. 매일 ‘아리랑’을 들리 주는 식당이 있다고 한다. 식당 이름은 ‘동해원(東海苑)’ 도쿄(東京新宿)에 있다. 창업자인 吳甲保(고인) 씨는 일제시기 15살에 제주도에서 오사카로 건너왔다. 공장에서 일하면서 밤에는 야간 학교에 다녔다는 그는 해방 후 도쿄로 가서 경영자로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식당을 경영하게 까지 이루었다. 그는 생전

에 「아리랑 고개는 조선 해협이고, 그것은 이별의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희망에 찬 출발점」이라고 했다 (미야즈카 1985:268). 어느 재일코리안은 「“아리랑”은 일본이라는 이국에 있으면서 자신의 존재를 일러 주는 원점과 같은 것이기도 해서 가끔 꺾일 것 같은 자신을 지탱해 주는 희망의 역할」을 한다고 증언했다 (미야즈카 1985:269). 아리랑에는 ‘북도 남도 없다’하나였던 이진이 조선을 상징하는 노래이기도 한다.

재일코리안들의 심정의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이정미(李政美)는 자작곡인 ‘케이세이센(京成線)’을 소개하면서 이 노래도 또 하나의 ‘아리랑’이라고 했다. 이 노래는 이정미가 나서 자란 도쿄 가즈시카에 대해서 부른 노래이다. 도쿄 중심에서 동네로 가는 전철 노선 게이세이선을 타면서 조선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를 그린 노래다. 이 지역은 1922년 9월 1일 관동대지진 때 많은 조선인들이 학살된 강가를 넘어서 간다. 그런 역사가 은근히 담겨 있는 가사인데 거기서 이정미는 1 세대가 ‘아리랑 고개를 몇 개나 넘어왔다’고 한다. 재일코리안에게는 아리랑 고개는 넘어가야 하는 ‘장애물’이고 싶다. 그런 아리랑 고개는 조선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에게도 있다고 한다(판소리 창자 안성민의 증언).

그럼 단합의 상징 아리랑에 대한 재일코리안의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처음으로 일본 전국지면에 ‘아리랑’이 실린 것은 「호르는 『아리랑』곡, 만찬회 一五〇명, 화려한 교환」이라는 기사가 아사히신문에 실린 것이 1984년이다 (미야즈카 1985:218). 1989년 9월 27일 재일코리안을 위한 「아리랑을 부르는 一만명의 특별 공연」이 오사카성에서 열렸다. 1990년 2월 11일 지바현 이치카와시(千葉県市川市) 문화회관에서 할머니·어머니·손자 삼대가 모여 아리랑 대합창을 지휘를 金洪才, 도쿄 시티 필하모닉 관현악단 연주로 「삼세대 五〇〇명 콘서트」가 있었고(“朝鮮画報”1990년 4월호), 그리고 같은 해 6월 30일에는 시부야 오차트 호텔에서 (渋谷オーチャードホテル)「一九九五 대합창-도쿄 동포 대음악회 '90」이 평양에서 김일진 지휘자를 초대하여 도쿄 필하모니교향악단 연주로 진행되었다 (“朝鮮画報”1990년 9월호).

3. 나가면서

이번 발표에서는 일본에서 ‘아리랑’에 대한 이미지 변천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일제시기 아리랑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살펴 봄으로서 문화 담론이 갖는 양면성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다. 위정자들이 보는 관점과 비지배자들이 갖는 관점이 같은 아리랑을 놓고도 미묘하게 의미 부여를 달리 하면서 받아드리는 모습은 밑 바닥에서 저항하는 하나의 방식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본에서 성악가로 유명했던 김영길(金永吉:永田絃次朗) 1961년 귀국선을 타고 공화국 청진항에 첫 발을 디었을 때 마이크를 잡고 부른 노래가 아리랑이 아니었던가. 앞으로 좀더 일제시기 일본에서의 아리랑 수용과 이미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해방 후에 일본에서 출판된 서적이거나 잡지, 신문기사들을 찾아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찾아보겠다. 이번 발표에서는 못 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도 시야에 넣어서 아리랑의 이미지 형성에 대한 분석도 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아사히 신문』(「朝日新聞」社会面) 1984년 9월 7일자
 『조선화보』(『朝鮮画報』)1990년 4월호, 9월호
 구사노 타에코(草野妙子)(1984) 『アリランの歌-韓国伝統音楽の魅力をさぐる』白水社
 김달수(金達壽)(1977) 『わがアリランの歌』中央公論

- 님 웨일즈 (ニム・ウェルズ) (1953) 『アリランの唄』 安藤次郎訳, 朝日書房
- 님 웨일즈 (ニム・ウェルズ) (1969) 『アリラン의 노래』 安藤次郎 みすず叢書Ⅱ
- 님 웨일즈, 김산 (ニム・ウェルズ, 김산) 共著 (1987) 『アリラン의 노래』 松平いを子訳, 岩波文庫
- 미야즈카 도시오(宮塚利雄) (1995) 『アリランの誕生－歌に刻まれた民族の魂』 株式会社創知社
- 시부키 기이치로(渋木喜一郎) (1990) 「強制連行の朝鮮人の苦しみ」 朝日新聞談話室編 『戦争－体験者の貴重な証言』 朝日新聞社
- 야마카와 리키, 김지영(山川力・金智榮) 共著 (1992) 『「日韓併合」とアリラン』 北海道新聞社
- 하야시 에이다이(林えいだい) (1987.2) 「地図にないアリラン峠－朝鮮人強制連行の実態－」 『季刊三千里』 四九号・三千里社
- 하야시 에이다이(林えいだい) (1988) 『朝鮮海峡－深くて暗い歴史』 明石書

본조아리랑의 유래를 정확히 밝히기 위한 문제

공명성 (조선사회과학원)

1. 민요 《아리랑》의 곡명과 곡수에 대한 견해

조선사람치고 민요 《아리랑》을 모르거나 부르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언제부터 이 노래를 《아리랑》으로 부르게 되었고 또 이 노래가 몇곡이나 되는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민요 《아리랑》을 이해하려면 이런 초보적인 문제부터 잘 알아야 한다.

그러면 먼저 《아리랑》이라는 곡명은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달았으며 이 노래의 곡명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하는것부터 알아야 한다.

곡명이라고 할때 그것은 말 그대로 노래의 이름을 말한다. 모든 민요들에도 다 자기의 곡명이 붙어있다.

이러한 곡명은 다른 민요들과 쉽게 구별할수 있게 하여줄뿐아니라 해당 민요에 대한 표상을 안겨주는데서도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의미에서 노래에서 곡명은 그 노래의 얼굴이라고 말할수 있다.

현대가요에서는 전문작가에 의하여 노래의 곡명과 가사가 씌여짐으로 이 문제는 논의되지 않는다.

그러나 구전민요는 전문작가나 작곡가가 따로 없이 논밭에서 일하던 농부나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 그리고 집에서 물레질을 하거나 베를 짜던 평범한 근로인민들이 자기들의 생활과정에서 느끼는 심정을 구두(입)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부른것만큼 노래가 처음 나올 때에는 곡명이 없었을것이고 그것이 오래동안 사람들속에서 불리워지는 과정에 점차 곡명도 붙여지게 되었을것이다.

그러므로 구전 민요에서는 곡명을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달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것이다.

더우기 민요 《아리랑》은(이하부터는 <아리랑>이라고만 한다) 전국 각지방들에서 다 불리워졌고 지방마다 곡명과 노래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것을 잘 알아야 이 노래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다고 할수 있다.

2. 《아리랑》의 가사와 선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는 문제

《아리랑》을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이 노래의 가사와 선률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래에서 가사는 사람들의 생활과 그 과정에 느끼는 그들의 사상감정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라면 선률은 가사에 반영된 내용을 음악정서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다.

그런것만큼 《아리랑》의 가사와 선률에는 지난날 우리 인민들이 어떻게 생활하여 왔고 그들의 지향과 념원은 무엇이였으며 그 과정에 느끼는 생활감정은 어떠하였는가 하는것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아리랑》의 가사와 선률에 대하여 잘 알아야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정확히 이해할수 있다.

《아리랑》은 오랜세월 각이한 시대, 각이한 사회제도, 각이한 사람들속에서 불리워졌다.

매 가창자들은 변화되는 새로운 사회적환경과 자신의 준비정도와 능력에 맞게 자기의 생활과 그 과정에서 느끼는 심정을 이 노래에 담아 불러왔다.

그러므로 《아리랑》의 가사내용은 노래마다 서로 다르며 또한 하나의 노래에도 여러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것도 있으며 한 노래의 가사가 다른 노래에 리용된것도 있다. 이런 조건에서 《아리랑》의 가사내용은 노래에 따라 볼것이 아니라 모든 《아리랑》의 가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주제별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노래는 사람들의 사상감정을 가사와 함께 선율로 표현하는 예술이다.

노래가 어제든 오늘도 그리고 먼 후날에도 인민들의 사랑속에 불리워지는 명곡으로 되자면 가사도 명가사로 되어야 하지만 특히 선율이 명선율로 되어야 한다. 가사의 내용이 아무리 좋고 형상성이 높다고 하여도 선율이 그것을 잘 안받침하여 주지 못하였을 때 그런 노래는 점차 자기의 생명력을 잃게 될수 있지만 선율이 좋을 때에는 가사를 바꾸어 새롭게 형상할수도 있다. 이것은 노래에서 선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을 말하여 준다.

《아리랑》은 비록 오래전에 나온 노래이지만 오늘까지도 우리 인민들의 사랑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 있고 또 조선의 명곡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

이것은 이 노래의 선율이 유순하고 아름다우면서도 처량한 정서로 우리 인민의 민족적 감정과 정서에도 잘 맞을 뿐만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의 감정과 정서에도 맞는다는것을 말하여 준다.

따라서 가사와 선율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인 문제라고 할수 있다.

3. 《아리랑》의 분포에 대한 견해

《아리랑》을 리해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이 노래의 지방별분포와 매 지방에 따르는 음악적특성에 대하여 잘 아는것이다.

그것은 《아리랑》이 어느 한 지방에서만 불리워진것이 아니라 전국의 거의 모든 지방들에서 다 불리워왔고 또 지방에 따라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발전하여 왔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리랑》의 지방별분포와 그 특성에 대하여 잘 알아야 이 노래를 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리해할수 있다.

4. 설화를 통해본 아리랑의 유래에 대한 견해

지난 시기 아리랑의 유래와 관련한 여러가지 설화들이 여러 지방에서 전해오고있으며 이러한 설화들에 기초하여 자기 지방이 아리랑의 본고장이라는 주장들이 적지 않게 제기되어 아리랑의 유래를 정확히 밝히는데 지장을 주고있다. 그러므로 아리랑과 관련한 설화들에 연구를 통하여 각지방에서의 아리랑의 유래와 그것이 다른지방에 전해지게 된 동기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아리랑의 유래를 밝힐수 있다.

5. 아리랑과 관련한 악보를 통하여 본 본조아리랑의 유래에 대하여

명곡 아리랑의 초기 악보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이 노래가 오래전부터 우리 인민들이 불러온 민요였으며 대중적으로 널리 불리우는 과정에 그 음악형상적으로 더욱 발전하여왔다는데 대하여 론증하는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아리랑》은 1926년 라운규에 의하여 창작된 무성영화의 주제곡으로 불리우면서 더욱 유

명해졌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우리 인민들이 널리 불려온 대표적인 민요였다. 그것은 1926년 이전에 우리 인민들속에서 아리랑이 널리 불리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헌기록들과 악보자료들이 실증해주고 있다. 특히 초기 아리랑곡조들을 기록한 여러 악보자료들은 이 노래가 민간에서 여러가지 곡조로 널리 불리워졌던 민요라는 것을 말해준다.

바로 이로부터 아리랑의 악보채보를 통하여 본조아리랑의 유래에 대하여 연구해보아야 한다.

6. 1920-1930년대 아리랑에 대한 소개와 연구를 통하여 본 본조아리랑의 유래에 대한 문제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에서는 조선민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속에 민요전문가들속에서 민요에 대한 채보와 함께 그에 대한 소개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개벽》 1923년 4호 《룡국민요 3수》 홍종인, 《동광》 1926년 11호 청상민요소고》 리은상, 《조선지광》 1929년 1월호 《조선민요의 특질과 그 장래》 김동환, 《조선》 1930년 5월 《조선민요의 고금》 안지담, 《조선》 1930년 5호 《조선민요의 연구》(1) 김지연, 《조선》 1930년 6호 《조선민요의 연구》(2) <조선민요 아리랑> 김지연, 《조선》 1930년 7호 《조선민요 아리랑》(2) 김지연, 《조선》 1930년 9호 《고금농요집》(2) 김지연, 《조선》 1930년 10호 《고금농요집》(3) 김지연 《개벽》 1928년 2월호 《제주도의 명요(제주도민요 50수)》 강봉옥, 《동광》 1932년 5월 《조선민요론》 최영한, 《삼천리》 1934년 6월호 《8도명창가곡평》 장안과객, 《조광》 1936년 1월 《서제소성》 량주동, 《삼천리》 1938년 10호 《서도민요기행》 김안서 등을 들 수 있다.

이시기 아리랑과 관련한 도서들로서 실지 민요에 대한 소개 잡지나 신문기사들은 더욱 많다고 본다.

특히 여기서 김지연이 1930년에 잡지 《조선》에 발표한 《조선민요 아리랑》은 당시 아리랑에 대한 대표적인 소개기사라고 할 수 있다.

이 기사와 함께 당시 출판된 여러 기사들속에서 언급된 아리랑에 대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본조아리랑의 유래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한 이해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7. 아리랑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에 대한 견해

조선민족이 사는 곳이라면 세계 각지 그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아리랑》상표, 《아리랑》식당, 《아리랑》상점에는 민족수난의 비극으로 인한 쓰디쓴 타향살이속에서도 결코 잊을 수도 버릴 수도 없는 조선민족의 본태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으며 유구한 역사를 가진 단일민족의 한 성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그대로 비껴 있다.

외세에 의하여 나라가 분열된 오늘에 와서도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은 한자리에 모여 이 노래를 부르면서 민족분열의 슬픔과 고통을 나누고 통일의 열망으로 가슴불태우고 있으며 북과 남이 공동으로 국제경기에 출전할때에도 민족의 노래 《아리랑》을 함께 부르며 경기장을 달리고 있다.

그러하여 오늘 세상사람들은 우리 인민을 가리켜 《아리랑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민요 《아리랑》이 우리 나라 민요를 대표하고 조선민족을 상징하는 노래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그러므로 아리랑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에 대한 연구는 아리랑이 조선민족을 상징하는 노래로서의 의미를 보다 깊이 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이다.

악보를 통해본 아리랑의 음악형상적발전과정

리영호 (조선사회과학원)

모든 민요들이 다 그러하지만 아리랑도 어느 시기부터 불리워졌는가 하는것이 명확히 밝혀져있지 않지만 노래의 유래를 전하는 수많은 설화들과 각 지방들에서 전해지는 여러가지 곡조의 아리랑곡들을 보면 오래전부터 다양한 변종을 가지고 전해져오는 대중적인 민요라는것은 명백하다.

이 글에서는 명곡 아리랑의 초기 악보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이 노래가 오래전부터 우리 인민들이 불렀던 민요였으며 대중적으로 널리 불리우는 과정에 그 음악형상적으로 더욱 발전하여왔다는데 대하여 론증해보려고 한다.

민요 아리랑에 대한 초기 악보들로는 조선봉건왕조 말엽 우리 나라에 왔던 험버트라는 미국인이 채보한것을 실은 《조선류기》(1896)의 악보, 일본사람 노부오가 채보하여《조선 반도》(1901년) 라는 잡지에 낸것, 그리고 선교사 알렌이 채보하여 《조선전문기》(1908년)에 낸것, 1914년에 리상준이 오선악보로 채보하여 편찬한 《조선속곡집》에 실린 아리랑 곡, 해방전 도서 《기생이야기》에 수자악보로 채보된 1920년대의 레코트에 취입된 아리랑 곡, 1926년 라운규에 의하여 창작된 영화 《아리랑》의 주제곡으로 김영환이 편찬한 《아리랑》곡 등이 있다.

여러 악보들가운데서 《조선류기》의 악보, 20년대의 수자악보, 리상준의 악보, 김영환의 악보들에 기초하여 민요 아리랑곡조의 유래를 밝혀보려고 한다.

오늘 우리 인민들속에서 애창되고있는 《아리랑》은 1926년 무성영화 《아리랑》의 주제가로 불리워짐으로써 유명해지게 된 노래이다. 당시 영화제작을 맡았던 라운규는 영화형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주제의 창작을 서울 단성사의 변사이며 작곡가였던 김영환에게 부탁하였으며 그 노래를 처음으로 부른 사람은 널리 알려진 영화배우 김련실이였다.

김련실에 의하여 발굴된 김영환이 편찬한 《아리랑》곡을 보면 《조선류기》의 악보나 수자악보, 리상준의 악보에 비하여 예술화되고 선률서술수법이나 장단리듬적인 측면에서 많이 발전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선행연구자들은 김영환이 편찬한 《아리랑》곡은 리상준의 《조선속곡집》에 수록한 아리랑곡조에 기초하여 편찬한것으로 보고있다.(《조선민요 아리랑》문학예술출판사 2011년 펴지)

악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곡은 6/8 박자로서 선률음조는 단조롭다. 김영환은 그 곡조를 3/4 박자로 바꾸고 조식, 선률진행방향과 선률선을 그대로 살려 주면서도 일부 음정과 리듬을 조금 변화시켜 노래의 형상성을 더욱 높여 완성하였다. 이렇게 놓고 보면 김영환의 아리랑곡은 민간에서 널리 불리워진 아리랑곡조를 더 세련시킨것이였다.

음악형상성이 발전되었다는것은 선률서술수법과 선률선, 장단리듬구사와 같이 악보상으로 나타난 구체적인 곡조의 흐름을 보면 알수 있다.

우선 첫소절의 선률을 둘째소절에서 반복하며 강조하는 선률서술수법에서 예술적으로 발전한것이다.

첫소절의 동기선률을 둘째소절에서 반복시켜 노래의 흥취를 돋구어주는 선률서술수법은 우리 인민들이 민요형상수법에서 전형적인 형태의 하나이다.

아리랑곡들은 모두 첫소절의 동기선률이 둘째소절에서 그대로 혹은 변형반복되고있다.

험버트가 채보한 악보나 리상준의 조선속곡집의 악보, 수자악보나 김영환의 아리랑곡도 모

두 첫소절의 선율이 둘째소절에서도 그대로 혹은 변형반복되는 수법이 쓰이었다. 그런데 그 반복수법은 초기의 악보에 비하여 김영환의 악보에서 더욱 발전되고있다.

1896년에 채보된 《조선류기》의 악보를 보면 첫소절과 둘째소절의 선율과 장단리듬이 완전히 그대로 반복되고있다. (악보-1)

그와 달리 수자악보에서는 모속반복되고 있다.(악보-2) 모속반복은 동기선율을 다른 높이에서 강조해줌으로써 정서를 점차적으로 승화시켜주는감을 준다. 수자악보에서는 첫 소절에서 솔로 시작되었지만 둘째소절에서는 음을 높여 도로 반복하여 정서적고조를 주고있다.

리상준의 악보는 6/8 박자로 되어있는데 선율의 첫동기가 둘째동기에서 도로 반복되었 다.(악보-3)

그런데 김영환이 편작한 악보를 보면 모속반복이면서도 변형된 모속반복형태로서 선율의 률동성이 더 강조되고있다. 이것은 노래의 선율성을 더 살리고 정서적고조의 순차적발전을 강화하여 음악의 률동성을 돋구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악보-4)

결국 단순한 제시선율의 반복형태도 《조선류기》의 악보에서와 달리 김영환의 악보는 훨씬 발전된 면모를 보이고있다.

또한 제시선율을 비롯하여 매 소절들에서 선율의 운률성이 점차 발전한것이다.

제시선율만 보더라도 험버트가 채보한 악보나 조선속곡집에 수록된 아리랑곡조나 수자악보의 선율은 완전히 동도진행으로서 일반사람들이 향간에서 흥얼거리는 노래형태로 채보되고있다.

그러나 김영환이 편작한 악보는 첫선율부터 운률성이 달라져 률동성이 강조된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노래곡조를 보면 매 소절에서 동도진행이 없이 선율선이 곡선으로 흐르면서 운률적인 률동이 강화된것을 찾아볼수 있다. 이것은 동도진행이 많은 사설조의 민요곡 조에 률동적인 운률성을 부각시켜 선율의 음조를 변화시켰다는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여 옛형태의 아리랑곡조를 예술적으로 좀더 발전시켰다는것을 알수 있다.

또한 선율선이 앞선시기의 노래들보다 굴곡있게 흐르는것도 선율의 예술적발전을 시사해준다. 선율선은 선율음들의 흐름방향에 따라 이루어진 높이에 의하여 그어지는 률조의 높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아리랑의 선율선은 순차적으로 연결되어나가다가 후렴구에서 감정의 양양이 이루어지는것이 특징이다.

《조선류기》의 악보나 수자악보는 동도진행이 많으면서 선율선이 아주 단조롭게 수평 적으로 흐르다가 5도 6도로 비약하였지만 김영환이 편작한 악보는 음들이 2도 3도로 순차적으로 오르내리면서 음률이 편안하게 오르내리면서 선율선의 곡선이 부드럽게 그려지고 있다.(그림 1.)

아리랑곡조의 원형들은 후렴구뿐만아니라 전렴에서도 동도진행이 많다. 특히 《조선류기》의 악보에서 전렴의 첫 악단을 보면 선율선이 완전히 수평을 이루고 있는것을 찾아볼수 있다.

악보에서 보는것처럼 《조선류기》의 악보에서 전렴의 첫악단은 선율선이 수평으로 흐르다가마감에 하강하고 있으며 둘째악단의 첫악구도 동도진행되고있다.

이와 달리 김영환이 편작한 아리랑은 원래의 선율적특성을 살리면서도 선율선이 곡선을 이루면서 정서적고조를 더 강화하였다

이것은 김영환이 편작한 아리랑이 앞서 대중적으로 불리우던 아리랑곡조들에 비하여 선율 진행방향과 선율선, 운률의 률동성이 더 강화되고 발전된것이다. 선율선들의 굴곡적인 파동이 앞선시기의 곡들에 비하여 더 강화되고 있는것은 그림을 통하여 직관적으로 잘 알수 있다.

또한 악보자료들을 보면 아리랑곡들이 앞선시기에 비하여 장단리듬적으로도 더 발전하였다

는것을 알수 있다.

아리랑악보자료들을 보면 장단리듬의 발전과정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초기의 민간에서 널리 불리워진 아리랑곡들은 장단리듬이 매우 단순하고 박자수도 적었지만 점차 발전하는 과정에 장단리듬이 발전하여 리듬적역양이 강해지고 박자수도 많아졌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조선류기》의 악보를 보면 리듬이 매우 단조롭고 간단하게 되어있다. 리듬구조가 단순하고 박자수가 적으며 후렴구에서 보는것처럼 박자들의 길어도 균등하게 구분되고있다. 룰동적높낮이가 선명하지 못하고 장단이나 고저의 대조성이 미약하였으며 자유박자로 불리운 노래라는것을 알수 있다.

1914 년에 채보된 리상준의 악보에서는 그와 달리 박자수가 더 많고 리듬적역양이 강조되고있는것을 찾아볼수 있다. 특히 후렴구에서는 길이적대조와 강박과 약박의 대조를 강조하여 리듬적룰동감을 살리고 정서적으로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것을 볼수 있다.

김영환이 편작한 악보에서는 리듬적구조가 더 짜이고 후렴구에서는 높은 소리에서 길게 끌어주면서 고조점을 터치도록 강박을 길게 늘여주고있으며 장단의 역양흐름에서 룰동선이 더 강조되고있는것을 찾아볼수 있다.

이렇게 아리랑곡들은 오랜 기간 불리워지는 과정에 장단리듬적으로도 더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가사의 내용을 보아도 초기의 아리랑곡들은 근로대중의 로동생활이나 세태생활속에서 자유롭게 불리워진 곡들이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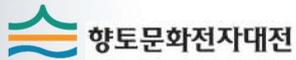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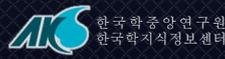
《조선류기》의 악보의 가사에는 《얼싸 배떡여라》라는 구절이 있어 노래의 정서적색채는 로동속에서 불리워지던 노래라는것이 명확하게 알린다.

우리 나라 민요에서 동도진행이 많은것은 로동민요의 일반적인 특징이었으며 또 평탄하게 흐르던 선율이 갑자기 비약하는 수법도 로동속에서 흘러나온 곡상이라고 볼수 있다. 배를 띄운다거나 그물을 던지는 작업, 또 도리개를 휘두르거나 방아공이를 내리칠 때 소리를 치며 힘을 주던 인민들의 생산활동이 아리랑곡조들에 그대로 반영되어 《얼싸 배떡여라》, 《방아 로구나》와 같은 가사들이 반영되게 되었던것이다. 《조선류기》의 아리랑곡조를 보면 그러한 로동민요적인 특징이 나타나고있다. 실례로 첫소절과 둘째소절에서 《쫄》로 동도진행되던 선율이 세번째 소절에서 5 도, 6 도로 비약하고 있으며 네번째소절에서 《쫄》로 마무리되었던 것이 다섯번째 소절에서 6 도 비약하고 있다. 전형적인 로동민요형식의 선율인 이 악보의 가사에는 《얼~싸 배떡여라》라는 가사가 있다. 이것은 이 노래가 인민들이 로동속에서 불리워진 어업 로동민요였다는것, 선율의 음조적 및 정서적특징은 물론 가사의 내용도 로동생활을 담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조선류기》의 악보는 당시 민간에서 널리 불리워진 민요를 그대로 채보한것이였으며 1896 년 이전부터 불리워졌으리라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1896 년에 불리워진 대중적인 노래형상에 비해 1926 년의 김영환이 편작한 아리랑곡은 선율과 장단리듬, 가사가 더 발전한것이며 우리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지던 원 아리랑곡조들을 예술적으로, 내용적으로 더 발전시킨 곡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생활·민속 문화 분야의 남북교류사업

- 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사업 -



1 향토문화전자
대전 소개

2 향토문화전자대전
남북협력 추진 경과

1

지역 문화 백과사전

우리나라 전국의 시·군·구 지역에 대해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유산, 경제 사회의 변화 발전상에 관한 모든 정보를 집대성한 지역 문화 백과사전

2

디지털 문화 콘텐츠

지역의 다양한 향토문화 자료를 발굴 수집 연구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집대성하고, 이를 디지털화 하여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 통신 매체를 통해 서비스 하는 디지털 문화 콘텐츠

3

순환형 지식 정보 시스템

서비스 이용자가 새로운 지식의 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콘텐츠의 고품질화를 자체적으로 촉진시켜 가는 순환형 지식 정보 시스템

1. 지역 문화의 허브로서 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

2. 전통문화 보존과 지역의 지식문화 산업 기반 구축

- 한국문화 디지털 사전의 편찬

- 지역 문화 경제의 활성화



지역 문화대전 편찬 현황: 총 73개 지역 완료



※ 편찬 진행 지역: 울산광역시(5개 구·군), 예산군, 삼척시, 청송군, 대구광역시 동구, 시흥시, 완주군, 아산시, 함양군, 해남군, 영주시, 순천시, 세종시, 익산시, 철원군, 북미(서부), 일본, CIS

1. 남북협력 사업 추진 배경

- 2000년 이후 남북간 화해, 협력 분위기 조성
-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이후 이산가족상봉, 금강산 관광 및 남북 민간 교류 사업 추진 본격화

→ 남북 학술 교류 및 협력 사업 확대

화두 “한민족 문화의 집대성과 동질성 회복”

향토문화전자대전의 북측 지역으로의 확대 편찬 추진

2. 사업 추진 목적

- 남측에서 시행되고 있는 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 사업의 북측 지역으로의 확대, 북측 각 지역의 향토문화자료를 수집·정리·연구하여 디지털화함으로써 민족 문화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집대성 작업 완성
- 남북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는 물론 정보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사업을 통해 남북 학술 교류 및 협력 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
- 북측의 향토문화를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함으로써 북과 남의 상호 이해 증진과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

3. 사업 추진 과정

1) 사전 협의

- 2004. 3. 중국 하얼빈시 제3차 코리아과학기술정보교류회 개최
 - 남측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센터, 북측 과학원 중앙과학기술통보사(CIAST) 관계자 참가
 - ▶ 가칭 “향토문화역사전자대전” 개발 논의
- 2006. 5. 북측에 향토문화전자대전 사업 협력 수행 제안 한국학중앙연구원과 북측 유관 분야 국가기관의 협력 사업으로 추진,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개성시를 제안

3. 사업 추진 과정

2) 추진 결정

- 2007. 3. 중국 베이징

북측 지역 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사업을 위한 남·북 공동협의회 개최

남측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센터 관계자 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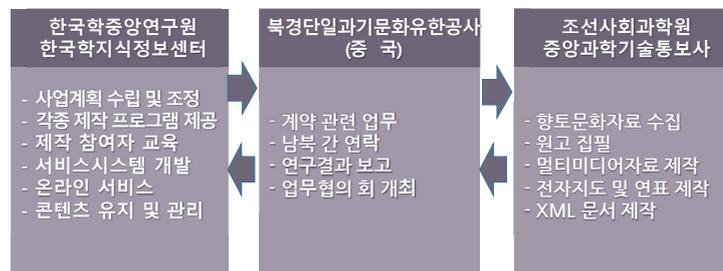
북측 사회과학원 및 과학원 중앙과학기술통보사 관계자 5명 참석

- 평양, 개성, 향산 시범 지역으로 제안

➡ 북측 지역 향토문화전자대전 시범사업으로 「디지털향산문화대전」 편찬 합의

: 북측 조선사회과학원과 중국 북경단일과학기술문화유한공사 간 「디지털향산문화대전」 편찬사업수행 합의서 체결

4. 사업 추진 체계



5. 『디지털향산문화대전』 편찬 사업



● 사업 개요

사업명	「디지털향산문화대전」 편찬
계약체결당사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중국 북경단일과학기술문화유한공사
사업기간	2007년 4월 24일 ~ 2008년 12월 30일
총 사업예산	약 금 290,000,000원(금이억구천만원)
수록콘텐츠	항목(일반·기획항목): 1,667항목 원고: 6,064매(200자 원고지 기준) 멀티미디어 자료 사진: 1,553건 동영상: 154건 도면: 94건 음향: 36건

● 세부 사업 추진 일정

사업명	기간	수행주체
선행조사연구	2007.4.24. ~ 2007. 7. 23.	북측 사회과학원 (분야별 전문가 68명)
원고집필 및 멀티미디어 제작	2007.11.1. ~ 2008.9.30.	북측 사회과학원
교열·윤문	2008.6.1. ~ 2008.10.30.	남과 북 전문 연구자 또는 「조선향토대백과」 편찬 경험자
XML데이터 제작	2008.11.27. ~ 2008.12.12.	㈜나라지식정보
서비스시스템 개발	2008.11.12. ~ 2008.12.12.	㈜애듀미디어
검수 및 완료	~ 2008.12.30.	

● 분야·유형별 수록 항목

(단위: 건)

분야	유형	개념용어	기관단체	놀이	동물	문헌	물품도구	사건	식물	유물	유적	음식물	의례	의복	인물	작품	제도	지명	행사	총합계	
구비전승·언어·문학		8				3										242				253	
문화·교육		8	13			3				1					1	75		4	4	109	
생활·민속		60		54			49			48	1	58	16	4		6		3		299	
성씨·인물		2																		2	
역사		13						8		5	7					10		2	1	46	
지리		30			103	2			109										391	635	
정치·경제·사회		17	33				20									1			20	1	92
종교		12	6			1				62	93					49	7		1	231	
총합계		150	52	54	103	9	69	8	109	116	101	58	16	4	61	330	2	420	5	1667	

6. 『디지털개성문화대전』 편찬 사업



● 사업 개요

사업명	「디지털개성문화대전」 편찬
계약체결당사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중국 단일과학기술문화유한공사
사업기간	2009년 8월 10일 ~ 2010년 12월 30일
총 사업예산	금 155,500,000원 (금일억오천오백오십만원)
수록콘텐츠	항목(일반·기획항목): 3,145항목 원고: 11,835매(200자 원고지 기준) 멀티미디어 자료 사진: 1,258건 동영상: 73건 도면: 12건

● 세부 사업 추진 일정

사업명	기간	수행주체
기초조사연구 원고집필 멀티미디어 및 지리정보 데이터 작업 윤문교열 XML 데이터 제작	2009.8.10. ~ 2010. 8. 9.	중국 단일과학기술문화유한공사 (북측 사회과학원 67명 참여) * 사업비 6회 분할 지급

원고 1차 교열 2009.11.17. ~ 2009.12.17. 남과 북 관련 분야 연구자

※ 남북관계 악화로 사업 중단

- 멀티미디어 및 지리 정보 데이터 작업 중 중단, 일부 데이터만 수록

※ 2011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시스템 개발, 내부 검토를 통해 사이트 완성.

- 미정제 데이터 탑재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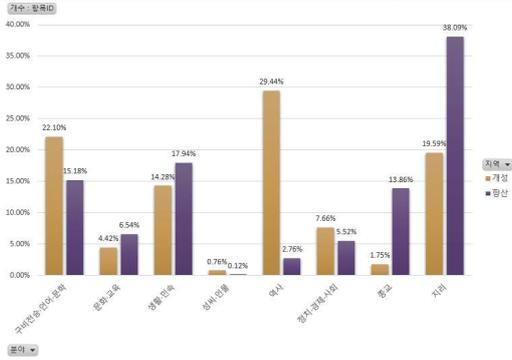
● 분야·유형별 수록 항목

(단위: 건)

분야	유형	개념 용어	기관 단체	놀이	동물	문헌	물품 도구	사건	성씨	식물	유물	유적	음식 물	의례	의복	인물	작품	제도	지명	특 산 물	행 사	총합계
구비전승· 언어·문학		206															489					695
문화·교육		16	64			7											44		2		6	139
생활·민속		52		75			89				84		69	38	38		1				3	449
성씨·인물								24														24
역사		23	9			53	47			429	156			1	134	2	63				9	926
정치·경제· 사회		43	62				82			7								1	15	30	1	241
종교		9	30							5	11											55
지리		31	1		91		1			124										366	2	616
총합계		380	166	75	91	60	172	47	24	131	518	167	69	38	39	134	536	64	383	35	16	3145

수록 내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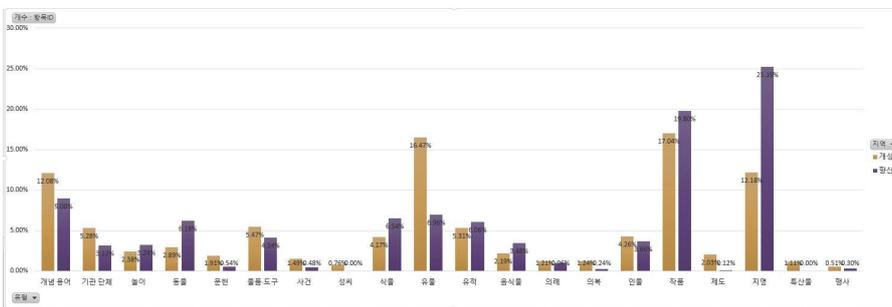
● 개성·향산 수록 내용 비교 - 분야별 항목 분포



- 항목 분포에 지역 특징 반영
 - 고려 수도로서 역사 문화를 간직한 개성
 - '수이장(秀而壯)'이라는 명산, 묘향산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를 배경으로 한 역사 문화를 가진 향산
- 향산은 지리 분야, 종교 분야
 - ※ 종교 분야는 불교 인물과 문화유산 위주
- 개성은 역사 분야 비중이 매우 높음
 - ※ 역사 분야에는 문화유산 포함. 인물, 제도, 사건은 전근대 위주.
- 공통적으로 구비전승언어문학, 생활민속 고르게 분포
- 현대에 해당하는 정치·경제·사회, 문화·교육의 비중은 낮음

수록 내용 비교

● 개성·향산 수록 내용 비교 - 유형별 항목 분포



- 개성은 역사 분야에 해당하는 유물, 유적, 작품, 문헌 등 문화유산의 비중이 높음
- 향산은 유물, 유적 외에도 작품, 지명, 동물이 두드러짐

7. 성과와 의미

- 최초 남북 공동 향토문화자료 수집 연구로서,
디지털을 통한 대중적 보급·확대 시도
- 사라져가는 역사 유적, 언어, 생활, 민속 자료 보존
- 이후 남북 공동 연구, 편찬의 기반 마련



남과 북의 문화적 특수성, 공통성 확인
동질성 회복에 기여

8. 사업 진행상 문제점

추진과정	• 남북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영향이 큼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소재 에이전시를 통한 사업 진행 → 소통, 협의 어려움 <p>간접 추진 사례 동북아역사재단 - 중국 연변대학 발해사연구소, 북측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의 함경북도 청진시 일대 발해유적 공동 발굴조사 지원, 그 성과를 발간</p> <p>직접 추진 사례 문화재청- 남북 공동 평양지역 고구려유적, 안학궁성 발굴 국립문화재연구소 - 조선중앙역사박물관 만월대 공동발굴</p>
추진기간	• 1년간이라는 짧은 기간에 편찬. 당시 기초지자체 편찬시 약 3년 소요. → 향토문화전자대전 체계 적용하기 위한 검토 기간 부족
내용	• 항목 선정과 원고 집필에서 이념과 사상, 정치적 해석 등 남북의 입장 차 있음. 특히 역사적 사건, 인물, 기관 단체

9. 향후 사업 진행 시 고려 사항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이 직접 소통, 협의가 가능한 편찬 추진 체계 마련 및 보장
추진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 과정, 수록 내용, 협의 절차 등이 포함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 기간 확보 콘텐츠의 질적 제고 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실행 기간 확보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 북 및 중국 거주 조선족 학자의 공동 연구·논의를 통해 기초조사 및 항목 선정, 원고 집필 수행 기 수행 향산·개성 자료 분석을 통한 수록 대상 분야 조정 고민 필요

우리 민족의 식생활에 대한 역사적 및 사회적연구와 국제적인식문제

조대일 (조선사회과학원)

1. 고대, 삼국시기 식생활과 음주문화의 초기발전과정

조선의 식생활과 음주문화는 그 역사적유구성과 고유성, 독자성으로 하여 오늘날 세계에 널리 알려져있다.

조선의 식생활과 음주문화는 이미 고대시기에 그 뿌리가 형성되고 삼국시기에 들어와 더욱 발전함으로써 당시에 이웃나라에까지 알려졌으며 삼국이후시기 조선식생활과 음주문화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고대조선과 중세 삼국의 식생활과 음주문화에 대하여 중국의 고전들에서 그 독자성이 강조되어 이웃나라들과의 차이점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인 유래를 그대로 현재의 식생활과 음주문화의 전통과 계승으로 보아야 하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견해상 북과 남은 물론 조선의 식생활과 음주문화를 연구하는 주변나라들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일련의 차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고대 및 삼국시기 식생활과 음주문화의 형성과 그 발전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 전승되고있는 조선의 식생활과 음주문화의 독자성과 전통을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연구하는데서 필수적인 요구로 나선다고 볼수 있다.

2. 고려식생활과 음주문화의 사회역사적지위

고려는 조선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고려의 의한 국토통일은 식생활과 음주문화면에서도 단일한 발전과 조선봉건왕조시기 식생활과 음주문화의 계승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었다. 그러나 조선역사에서 고려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견해에서는 북과 남의 학자들속에서 일련의 차이가 존재하고있다.

이러한 차이는 고려의 식생활과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에서도 다를바 없다. 많은 경우 고려의 식생활과 음주문화를 중국의 당송문화의 테두리안에서 고찰하려고 하는 견해도 존재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조선식생활과 음주문화의 국제적 및 역사적, 사회적고찰을 진행함에 있어서 고려의 식생활과 음주문화를 전면적으로 연구하는것은 고려식생활과 음주문화의 전통과 계승 그 의의를 정확히 해명하는데서 커다란 중요성을 가진다고 볼수 있다.

3. 조선봉건왕조시기 식생활과 음주문화의 다양성과 특성

조선봉건왕조시기 식생활과 음주문화는 전시기에 이룩된 식생활과 음주문화를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역사적환경과 조건에 맞게 새로운 식생활과 음주재료들을 받아들여 조선사람의 구미와 기호에 맞게 발전시킨것으로 하여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것으로 특징지어진것이라고 볼수 있다.

또한 문화적측면에서 볼 때 조선봉건왕조시기는 식생활과 음주문화가 조선민족의 고유한 문화적전통으로, 풍습으로 고착된 시기라고 볼수 있다.

더우기 조선봉건왕조시기 식생활과 음주문화에 대한 역사사료가 많이 남아있는것으로 하여 오늘까지도 그에 대한 연구가 다른 시기에 비하여 많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역사사료의 방대성으로 하여 보다 깊이있는 연구는 아직도 진행중에 있다고 말할수 있다.

이와 함께 마치 조선봉건왕조시기 식생활과 음주문화가 아주 풍부하였던것처럼 잘못 인식되는 경향도 적지 않다. 조선봉건왕조시기는 외래침략과 또한 매해같이 계속되다싶이한 흉년으로 그 어느시기보다 구황음식이 발전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조건에서의 식생활과 음주문화에 대한 연구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조선봉건왕조시기 식생활과 음주문화에 대한 연구는 사료가 매우 적은 전시기의 조선식생활과 음주문화에 대한 연구와 함께 현대 조선식생활과 음주문화에 대한 연구를 보다 깊이있게 진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볼수 있다.

4. 조선식생활과 음주문화에 대한 국제적인식과 그 보급(고대-현대)

조선의 식생활과 음주문화는 조선민족이 조선반도를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에서 독자적인 대동강문화를 창조하고 반만년의 오랜 역사적과정에 발전시켜오던 과정에 이루어진것이다. 더우기 19 세기 후반기 이후 외국인들의 수많은 류입과 세계가 그 정체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조선의 식생활과 음주에 대한 국제적관심이 높아지는속에 김치와 비빔밥과 같은 조선음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또한 다른 나라에는 없는 단고기문화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들도 존재하고있다.

이와 함께 조선식생활과 음주문화에 대한 국제적관심은 고대시기부터 이루어졌으며 특히는 조선식생활과 음주의 고유성과 독자성, 그 가공기술의 과학성, 위생학적, 영양학적가치로 하여 세계적인 건강식품의 하나로 인정되어 그 인식과 보급에서 일정한 역할을 놓고있다. 따라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조선식생활과 음주문화에 대한 국제적인식과 보급에 대한 연구를 다각적으로 깊이있게 진행하는것은 국제적인 식생활과 음주문화의 활발한 교류와 보급을 진행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수 있다.

5. 조선식생활과 음주문화와 이웃나라 식생활과 음주문화의 공통성과 차이

조선의 식생활과 음주문화는 조선민족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온것으로 하여 이웃나라들의 식생활과 음주문화와 뚜렷이 구별된다.

그러나 모든 지역과 나라의 식생활과 음주문화가 다 그러하듯이 조선의 식생활과 음주문화도 이웃나라들과의 문화적교류와 접촉과정에 보다 발전풍부화되었다.

그러므로 조선식생활과 음주문화와 이웃나라 더 나아가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른 나라의 식생활과 음주문화와와의 공통성과 그 차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것은 조선식생활과 음주문화의 본태를 보다 명확히 리해하며 국제적인 식생활과 음주문화권에서 조선식생활과 음주문화의 지위와 역할을 잘 아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볼수 있다.

더우기 조선의 식생활과 음주문화를 국제적인 식생활과 음주문화의 발전추세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며 국제적인 식생활과 음주문화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는데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남북 고문헌 자료의 공동 조사 연구 및 활용방안

Est. 1869

Wednesday, November 24, 1892

Price 6d

안승준(한국학중앙연구원 수석연구원, 고문서연구실장)

목 차

머리말

- I. 고문헌 조사 수집과 활용현황
 1. 한국의 주요 고문헌 조사 수집내용 및 소장기관
 2. 북측의 고문헌
 - II. 남북 공동 고문헌 조사 연구 및 활용방안
 1. 고문헌 조사 연구 방안
 2.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공동추진
- 부록

머리말

① '고전'에 대한 새로운 시각

② 전통적 의미의 고전

- 연대기류(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 문집류(귀족 양반출신 인물의 문집: 고전번역원, 문집총간)
- 법전류(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등)

* 신분제를 기반으로 한 지배층이나 그들의 시각이 반영된, 혹은 통치제도에 대한 글

③ 현재적 관점에서의 고전

- 우리 민족 전 구성원의 삶 중 역사 발전에 기여한 자료
- 우리 민족의 삶의 내용과 그 가치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전략을 담은 자료
- 1980년대 이후 집중 발굴된 고문서: 귀족(양반), 여성, 무인, 중인, 농민 상인, 노비 자료 대량 발굴(약 150만점)

머리말

<표> 민족고전학에서의 고전문헌의 분류



(윤국일, 「민족고전학의 연구에서 제기되는 문제」

『역사과학』 160호, 1996)

1. 고문헌 조사 수집과 활용현황

○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 고문헌조사(1925~1938)

조선사 연구를 통해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논리로서 국내 및 일본 소재 고문헌 조사.

〈朝鮮史〉·〈朝鮮史料叢刊〉·〈朝鮮史料集眞〉 간행

1. 남측의 주요 고문헌 조사 수집 내용 및 소장기관

(1) 고문서의 내용과 분류

문서의 종수 : 5~600 여 종

○ 고문서의 내용에 따른 분류

- ① 資格認定 관련(敎令類) 문서 - 告身, 有旨, 敎書, 諭書, 祿牌 등
- ② 科擧 관련 문서 - 紅牌, 白牌, 試券 등
- ③ 民願, 請願 관련 문서 - 所志類(等狀, 白活, 議送), 上書, 上疏, 上書 등
- ④ 人口 관련(戶籍類) 문서 - 戶口單子, 準戶口, 戶籍臺帳, 戶籍中草 등
- ⑤ 官府(準官府) 문서 - 關, 牒呈, 帖, 解由文書, 照訖帖, 書目, 手本, 甘結 등
- ⑥ 財産相續 관련 문서(分財記類) - 遺書(遺言), 別給文記, 衿給(分衿)文記, 和會文記 등
- ⑦ 去來 관련 문서(明文類) - 奴婢, 土地, 家舍, 牛馬, 漁場, 貢人, 權賣買明文 등
- ⑧ 意思疏通 관련 문서 - 書簡, 通文, 墨牌 등

1. 남측의 주요 고문헌 조사 수집 내용 및 소장기관

○ 고문서의 내용에 따른 분류

- ⑨ 經濟 관련 문서(置簿類) - 日用記, 田畝案, 奴婢案, 賭租案, 秋收記, 衿記, 打租記 등
- ⑩ 村落(마을)관련 문서- 洞契案, 完議, 書目 등
- ⑪ 門中(宗中)組織, 運營 관련 문서 - 大宗契案, 小宗契案 등
- ⑫ 婚喪祭禮 관련 문서 - 扶助記, 看時記, 時到記 등
- ⑬ 日記(記錄)類 - 承政院日記, 史草, 鄉村日記, 在官日記, 義兵日記
- ⑭ 校院(鄉校, 書院, 祠宇) 관련 문서 - 靑衿案, 校任案, 先生案, 完文入院錄, 院生錄, 傳掌記, 儒林案 등
- ⑮ 寺刹 관련 문서 - 重修記, 奴婢案, 田畝案 完文 등
- ⑯ 外交 관련 문서

1. 남측의 주요 고문헌 조사 수집 내용 및 소장기관

(2) 문서 형태에 따른 분류

- ① 교령류(敎令類)
- ② 소·차·계·장류(疏·劄·啓·狀類)
- ③ 첨·관·통보류(牒·關·通報類)
- ④ 증빙류(證憑類)
- ⑤ 명문·문기류(明文·文記類)
- ⑥ 서간·통고류(書簡·通告類)
- ⑦ 치부·기록류(置簿·記錄類)
- ⑧ 시문류(詩文類)
- ⑨ 외교·문서류(外交·文書類)

1. 남측의 주요 고문헌 조사 수집 내용 및 소장기관

(3) 주요 고문헌의 서비스 현황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 고전적조사사업(1985~): 전국적인 민간 및 서원 향교 사찰 등 문헌조사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aks.ac.kr>)
 - 고문헌서집성(120책): 국학진흥사업(1991~현)의 결과물,
전국의 고문서 조사 정리 간행 DB구축 및 인터넷 업로드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 전국 100여개 공·사립대학 박물관 등에 소장된 고전적 목록 서비스
- 국사편찬위원회: 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
- 한국국학진흥원: 국학문고(<http://www.koreastudy.or.kr>)
 - 안동소재, 50만점 고문헌 소장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http://kyujanggak.snu.ac.kr>)

2. 북측의 고문헌

- 安珦 종손 안재찬씨(황해도 연백거주)의 증언
 - 한국전쟁 당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수집
- 율곡 이이(황해도) 종가자료
- 준원전(濟源殿) 자료의 유통
 - 함경남도 영흥의 태조 이성계의 전각,
국보호적(이성계호적) 원 소장처

2. 북측의 고문헌

○ 朝鮮史料集進 소재 고문서(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 1937)

번호	소장처(소장자)	자료명	작성연대	내용
1	함경남도 단천군 청송심씨 심지백증가(沈元鑄)	심지백 개국원종공신녹권	1397년	조선개국에 공이 있는 심지백에게 수여한 공신녹권
		兵曹朝謝帖	1409년	국왕의 임명장
		沈洋戶口單子	1490년	심양이 관부에 제출한 인구관련 문서
		沈守平戶口單子	1523년	심수평이 관부에 제출한 호적문서
2	황해도 해주 덕수이씨 율곡 이이 증가(李鍾文)	經筵日記(율곡자필)	16세기 후반	율곡 이이의 경연일기
		中唐社稷(율곡자필)	16세기 후반	이이의 성리학 저술
		高山九曲圖(金壽增筆)	17세기 후반	金壽增(1624~1701) 구곡도
3	함경남도 안변군 釋王寺	釋王寺奴婢推刷都案	1739년	노비 관리 정책고문서
		釋王寺奴婢田結田畝籍盆冊給記	1791년	노비 전답 염분 등 국왕의 재산증여
		僧自超贈號敎書	1792년	왕명문서
4	평안북도 정주군 수원백씨증가 (白彝行)	白慶翰備義徵文	임오	의병 창막관련 격문

2. 북측의 고문헌

○ 북측의 연구 논저에 언급된 북측 고문서 현황

소장처	소장 확인 고문서
중앙역사박물관	장전금점문서 장전항점(고문서 6001호), 기타 고문서
김일성종합대학도서관	대구부사례, 관서평란록, 선전원의, 평안감영계록, 단천부사례지남책, 송영갑신신정사례, 순무영등록, 진주조군작변등록, 진중일기, 서정일기, 해영일기, 송영일기, 홍경판전장수세건기
인민대학습당	건원소전여기, 초산민소축, 호적음림책
중앙도서관	고문서
조선민속박물관	고문서 3267, 기타 고문서
사회과학원	백랑면지, 타금장책, 홍경리전담정안(고문서1021호) 17~8세기 토지매매문건 115건 고문서 3267, 6017, 1091호 등 《고문서》 ~47책
사리원역사박물관	청원담순심요법문, 고문서 제3호
해주역사박물관	고문서 575-4호
조선총독부경제사료집 1	립전원의문서조, 선전원의 등 고문서 수록
소장처 불명	오만동연점록, 개성부 홍경리량안, 진주군 내동리대장, 군문등록, 소위포장의록, 임술록, 교남일록, 임술리정정등록, 3정리정점록, 제주목안핵장계등록, 제주목안핵장계등록, 의상장책, 타금장책(이상 2건 개성상인 장부), 신유년 공인 시전인 폐막별단(신유별단), 경주호장선생안, 연조구강, 내수사 전라도장토문적, 진관평면요역(남한소재?), 선전원의문, 현은산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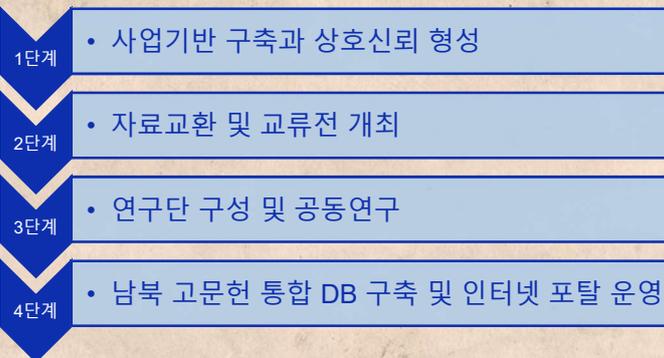
2. 북측의 고문헌

<참고문헌>

『력사과학』 1955년 제1호~2007년 제3호.
김일성종합대학도서관,
『도서목록(한서분류목록)』 1~3권, 1958.
사회과학원, 『조선 고전 해제』 (1), 1965.

II. 남북 공동 고문헌 조사 연구 및 활용방안

1. 고문헌 조사 연구 방안



1. 고문헌 조사 연구 방안

(1) 1단계: 사업기반 구축과 상호신뢰 형성

- ① 남북 간 고문헌 정보 교환
- ② 고문헌 조사 연구자 간의 교류
- ③ 고문헌에 관한 남북 및 해외 공동연구

1. 고문헌 조사 연구 방안

(2) 2단계: 자료교환 및 교류전 개최

- ① 자료도판의 확보와 자료집 간행
- ② 주제별 교류전 개최: 한글고문헌 특별전 등
- ③ 중요 자료의 복간 및 복제: 조선왕조실록
적상산본 등

1. 고문헌 조사 연구 방안

(3) 3단계: 연구단 구성 및 공동연구

① 주제별 공동연구 정례화

- 한글문헌에 대한 자료교류 및 연구활동
- 실학자 및 그들의 저술에 대한 자료교류와 이를 통한 공동
정본화 및 자료집 간행 번역사업
- 임진왜란 및 동학농민전쟁, 의병운동, 민란 등에 대한
자료교류와 공동 자료집 간행 및 번역사업
- 국방, 영토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교류, 편찬 및 번역사업.

② 상시 협력체계 마련을 통한 교류 활성화

- '남북 고문헌관련 연구자 협의회(가칭)'구성

③ 현장답사 및 조사

- 남과 북의 주요 문중, 서원, 향교, 사찰 등 공동 조사

1. 고문헌 조사 연구 방안

(4) 4단계:

남북 고문헌 통합 DB 구축 및 인터넷 포탈 운영
: '우리 민족 기록문화유산 DB(가칭)'구축

2.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공동추진

- 필요성
 - 남과 북의 문화적 동질성 파악
 - 우리 민족문화의 우수성 해외 전파
 - 기록 유산 공동 연구를 통한 남북 협력 증진

2.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공동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남: 훈민정음 해례본(1997)부터 조선통신사 기록물(2017)까지 총 16건 등재
 - 북: 무예도보통지(2018) 1건 등재
 - 세계에서 4번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첫 번째로 많이 등재
 - 남과 북의 별도 등재 노력으로 인한 민족 역량의 분산

2.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공동추진

(1) 조선왕조실록(적상산본)

-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조선왕조실록] :

무주 적상산본의 지정추진

북 : 조선왕조실록 적상산본(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소장)

남 : 성종실록광해군일기(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 국립중앙박물관)

* 조선왕조실록 중 정족산본, 태백산본, 오대산본, 기타
산엽본 총 2,077책 1997년 등재(남측)

(서울대학교 규장각, 부산 국기기록원)

2.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공동추진

(2) 공동기획 추진 : 민생관련 고문서

- 민원 소송자료

- 재산상속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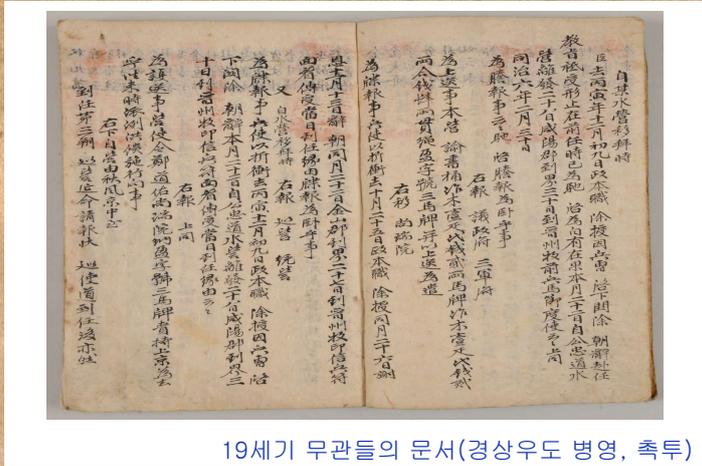
- 민생경제자료

- 과거 교육자료

- 민속(관혼상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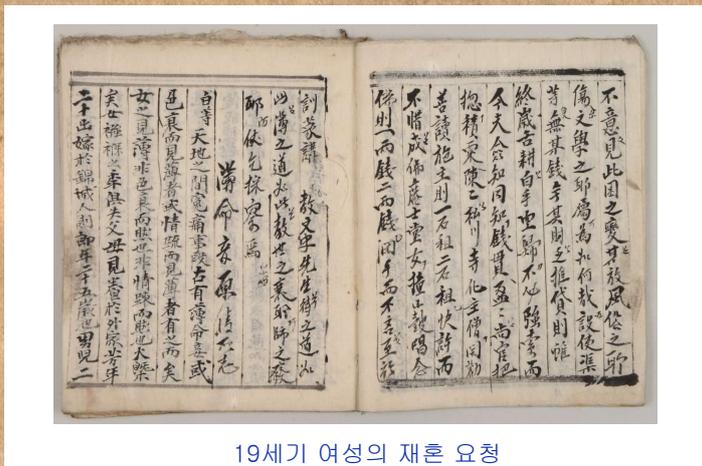
(3) 남측 소재 북측 지역관련 고문서

부록. 1. 남측의 고문서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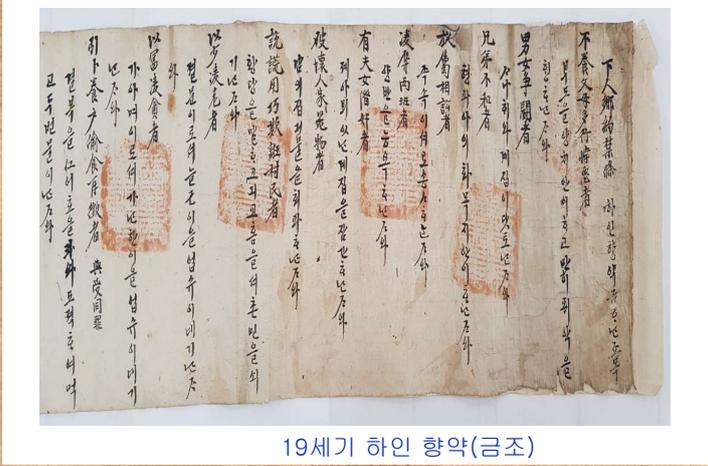
19세기 무관들의 문서(경상우도 병영, 축투)

부록. 1. 남측의 고문서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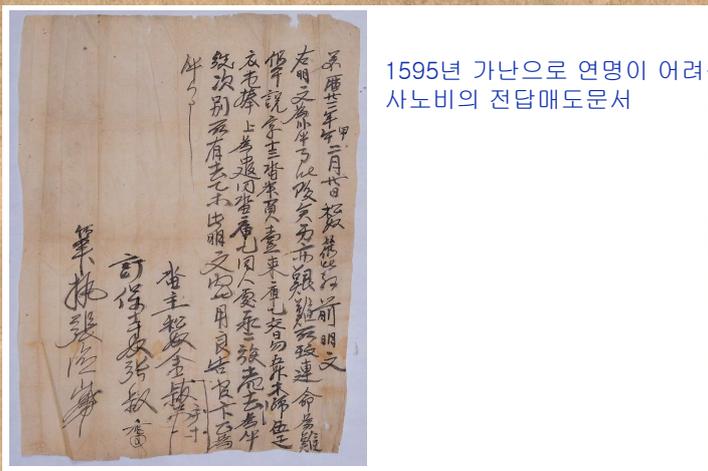
19세기 여성의 재혼 요청
민원서
<백명철 원정소지>

부록. 1. 남측의 고문서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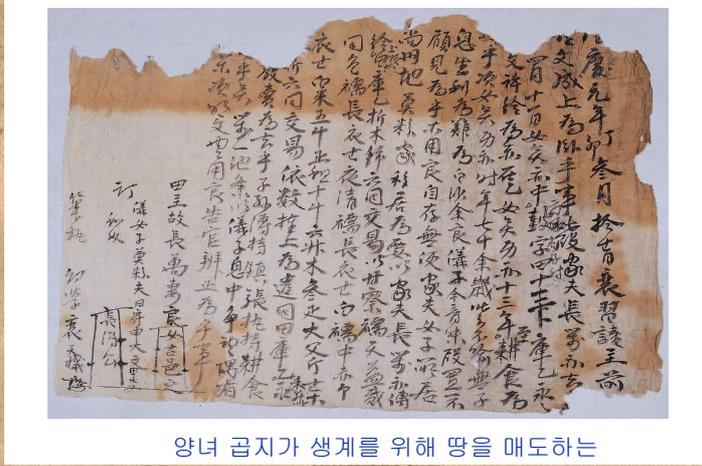
19세기 하인 향약(금조)

부록. 1. 남측의 고문서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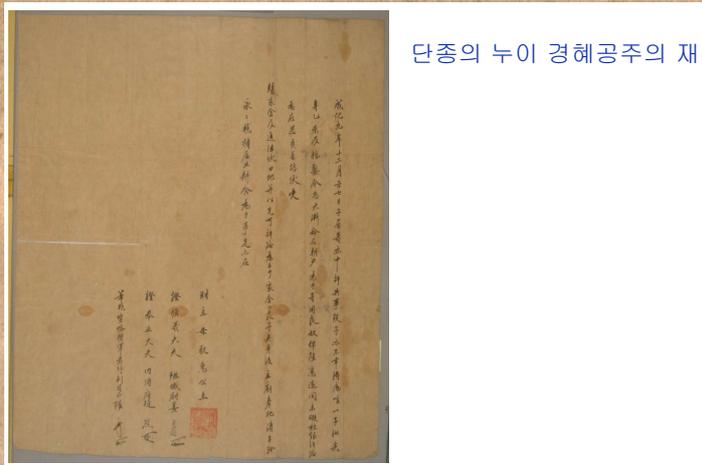
1595년 가난으로 연명이 어려운 사노비의 전답매도문서

부록. 1. 남측의 고문서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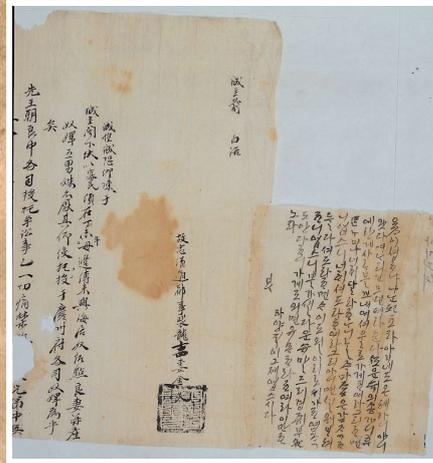
양녀 곱지가 생계를 위해 땅을 매도하는 문서

부록. 1. 남측의 고문서 예



단종의 누이 경혜공주의 재산상속문서

부록. 1. 남측의 고문서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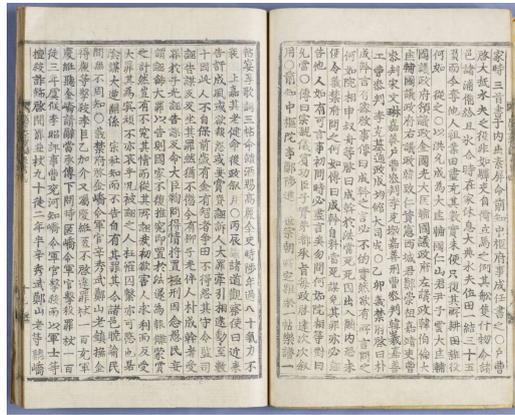
아버지가 딸에게 준 한글편지를
소송의 증서자료로 제출된 문서
(발괄) 딸

부록. 2. 성종실록(적상산본, 장서각 소장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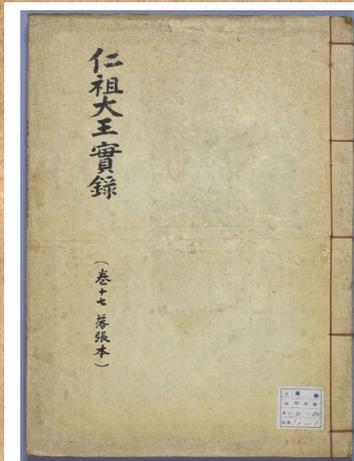
적상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1
'이조실록'의 남측 장서각 소장본

부록. 2. 성종실록(적상산본, 장서각 소장)



적상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2(성종실록)

부록. 3. 인조실록(적상산본, 장서각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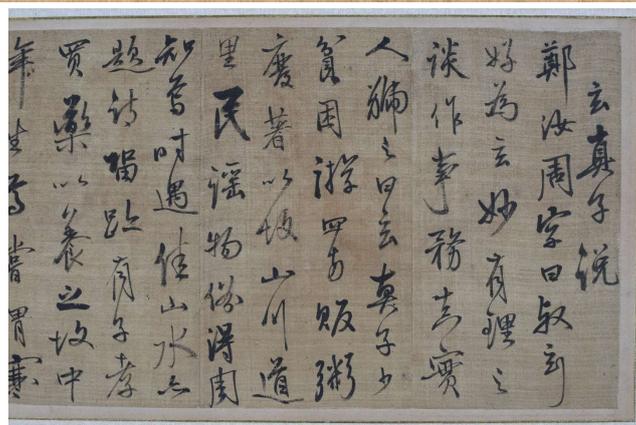
적상산 사고본 인조실록 1
남측 장서각소장본

부록. 3. 인조실록(적상산본, 장서각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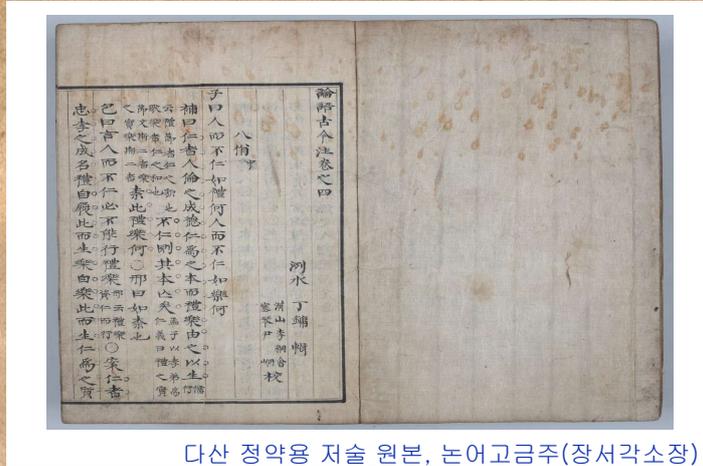
적상산 사고본 인조실록2

부록. 1. 한국의 고문서 예



다산 정약용 친필 현진자설(장서각 소장)

부록. 4. 남측의 고문서 예



다산 정약용 저술 원본, 논어고금주(장서각소장)